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기 예수의 탄생 일을 맞아 2천년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을 낭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12월 21일 (토) 제 1759호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발행인 칼럼

## 크리스마스의 기적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2016년과 2017년 연말, 필자가 섬기는 단비TV 이사회 교회들의 연합 성탄 찬양 축제가 있었다. 찬양 축제의 타이틀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다. 연말의 바쁨, 준비의 번거로움, 오고가는 먼 거리, 잘 몰랐던 어색함 등등 여러 구실들을 내세워 그리고 서로 다른 교단이라는 아주 선명한(?) 이유를 드러내며 연합 성탄절 행사를 갖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각기 다른 교회를 섬기던 자들이 온갖 이유들을 뛰어 넘어 따뜻하고 웅장한 연합 성탄절 행사 갖게 되었고, 그 모임 자체가 기적(奇蹟)은 아니더라도 기적에 버금가는 벅찬 놀라움을 서로에게 안겨주었다. 크리스마스는 기적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생생한 대면(對面)이 이루어진 크리

스마스가 어찌 황홀한 기적이 아니겠는가. 처녀의 잉태함이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내용인데 이 사건을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달리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 로마 황제가 천하에 명령을 내려 모든 사람이 호적(戶籍)하러 각 각 고향으로 가야 했는데, 그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메시아 탄생을 예언된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다는 것은 광활(廣闊)한 역사(歷史)의 시공간(時空間)에 조금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펼쳐진 놀라운 기적이다. 첫 성탄절이 간직한 이야기로써, 냄새나는 말구유에 하나님의 아들의 누우셨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한없는 소망을 던져준 기적의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야기일 것이다. 1954년,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 리더스 다이제스트(Reader's Digest)에 실렸던 이야기를 "Christmas Stories For the Heart"라는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시골 교회의 젊은 목사님 부부가 오래되어 낡은 교회의 이곳저곳을 손보고 고

치면서 성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센 폭풍이 그 마을을 휘몰아치면서 교회의 강단 뒷벽에도 큰 구멍을 내었다. 목사님 부부는 그 큰 구멍을 어떻게 메울지 당혹해하는 가운데 마을에서 열렸던 청소년을 위한 경매에 참여하였다. 거기서 아주 싼 가격에 오래 된 금빛과 아이보리색의 레이스를 가진 테이블 덮개를 사게 되었는데 그 테이블 덮개로 강단 뒷벽의 큰 구멍을 훌륭히 덮을 수 있었다. 성탄절 이브 예배가 있는 날 낮, 젊은 목사님은 교회 앞 추운 버스정류장에서 떨면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인을 보게 되었다. 목사님은 그 여인에게 버스가 오려면 멀었으니 교회에 들어와 계시라고 했다. 그 마을에 일자리 인터뷰를 하러왔다가 돌아가는 중이라고 했던 그 여인은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며 강대 뒤에 걸려 있는 테이블 덮개를 향해 걸어갔다. "이건 내 것입니다. 예전에 내 남편이 나를 위해 만들어준 것이 분명해요. 전쟁 때에 남편과 헤어졌는데 훗날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 뜻 깊은 테이블 덮개를 가져가라는 목사님의 권유를 뿌리치고 그 여

인은 버스를 타고 떠났다. 그 날 저녁 성탄이브 예배를 끝난 후 목사님이 성도들과 인사하는 중에 한 남자가 목사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저 강대상 앞에 걸려 있는 것은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 만들었지요. 전쟁 때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졌는데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로 죽은 줄 알았던 부부는 살아 있었고 마침내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기적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이다. 익숙하지 않았던 어색한 환경이 크리스마스와 함께 올 수 있다. "처녀가 잉태를?"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크리스마스도 있다. 누군가에 의해 어디론가 정처 없이 떠나야 하는 눈물겨운 크리스마스일 수도 있다. 화려한 길거리의 크리스마스와는 달리 아무 먹을 것도 없는 배고픈 크리스마스를 맞을 수도 있다. 차디찬 폭풍우가 크리스마스와 함께 올 수도 있으리라. 여기저기 구멍 난 크리스마스도 있다. 낙심마시라. 잊지 마시라. 크리스마스의 기적들은 그런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퀸즈장로교회는 12월 12일 지역 관공소와 주민들에게 사랑의 바구니를 전달했다. 교인들이 바구니 제작을 마치고 담임 김성국 목사와 기념촬영 했다.

##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 퀸즈장로교회 과일바구니 전달

2019년 성탄과 연말이 다가오면서 뉴욕일원의 많은 교회들이 이웃 섬김과 성탄음악회 등을 개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퀸즈장로교회는 911사태 이후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사랑의 바구니 행사를 해오고 있으며 15일 저녁에는 성탄음악회를 열었다. 뉴욕효신장로교회도 같은 날 저녁 메시아 공연을 갖고 스코틀랜드 교육 선교 후원금을 전달했다(10면 기사참조).

지난 12월 12일 퀸즈장로교회는 '사랑의 바구니'를 지역사회에 전달했다. 담임 김성국 목사는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산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작지만 마음을 전하고 있다"며 "퀸즈장로교회가 다민족 선교를 하면서 보다 본질적인 메시지를 나눌 수 있겠다. 사랑의 바구니는 복음을 나눌 수 있어 더 좋다. 한인교회가 120년 전에 받은 복음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는다는 마음으로 격려가 된다"고 말했다.

각종 과일과 캔디류들이 담긴 바구니는 소방서와 경찰서를 중심으로 흑인교회와 주민들, 요양원, 선교회 등 총 160개가 전달됐다. 이날 바구니 제작에는 한인뿐 아니라 영어회중, 중국어회중, 러시아회중 등이 참여했다. 한편 15일 저녁 5시에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열린 성탄음악회는 "메시아: 우리를 위해 한 아기 나셨다"는 주제로 1부 예언과 탄생에 대해 공연했다.

(4면으로 계속)



시론 김인환 목사 3면



한국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7면



본사방문 구영미 교수 9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  
캠 퍼 스 | 온라인  
www.wmu.edu | (213)388-1000 | 500 Shatto Pl., Los Angeles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백서출판 / 성경 / 일반 서적 / 기쁜 / 교회음악 / 영성서적 / 영안기부서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39th St. #105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Glenwood Terrace Park Ridge,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chpress1@chpress.net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성동역기, 생가복합 주문 제작, 탁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330-8080 | bibwestoro@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담임한기홍목사

# 은혜이슬 새벽부흥회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일시: 2020. 1. 6(월)~10(금)/5:20am, 11(토)/6:00am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본당)

 1/6(월) 5:20am 강사: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1/7,8(화,수) 5:20am 강사: 김남수 목사 (뉴욕 프라미스교회)	 1/9(목) 5:20am 강사: 신승훈 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1/10(금) 5:20am 강사: 양준길 목사 (뉴저지 필그림교회)	 1/11(토) 6:00am 강사: 김춘근 장로 (JAMA, GLDI 대표)
---	--	---	--	---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의 말씀 방송**

우리방송 AM 1230	오전 08:30(주 일)
JSTV 미국전역 CH 668(Dishnet)	오전 10:00(주 일)
San Diego Radio Korea	오전 04:00(월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전 08:00(화요일)
크리스천 메릴랜드 방송 AM 1650	오전 05:30(수요일)
KCBS Chicago AM 1590	오전 10:20(수요일)
JSTV 미국전역 CH 668	오전 1:30, 5:30, 9:40(목)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전 03:30(금요일)
크리스천 비전 Radio Korea AM 1540	오전 04:30(금요일)
미주복음방송 AM 1190	오전 11:30(금요일)
CTS TV 한국(금)	오전 05:00(한국시간)
CGNTV	오전 10:00(금요일)
크리스천 비전 Radio Korea AM 1540	오전 10:30(금요일)
Radio Seoul AM 1650	오전 00:00(토요일)

그외 인터넷 방송  
KCMUSA.org(재미연인기독교선교재단)  
SBN(Smart Bread Casting Network)  
SON(Ministry/GMAN Radio)  
KCBN (미주기독교방송국)  
OKCTV

주일예배 | 1부 7:30am | 2부 9:20am | 3부 11:30am | 4부 2pm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OPEN]  
예배 | 5:30am, 8pm | 금요성령집회 8:00pm

은혜한인교회 www.gracemi.com 150 S. Brookhust Rd.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시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김인환 목사 (전 총신대 총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다. 그 소식은 하나님께 길고 긴 험난한 구속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그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구주의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었기에 진정 복된 소식 곧 복음이 아닐 수 없다.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하늘의 천군들이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러한 복음을 듣고 신비로운 사실을 목격한 목자들은 그 즉시 천사가 전해준대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말구유에 누워 있는 갓난 애기,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의 출생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들은 그 아기의 어머니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들이 경험한 신비로운 사실을 전해주었다. 이로서 그 목자들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되었다.

이 후로 이 소식은 인류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졌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때문에 새로운 세상의 역사가 펼쳐졌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 곧 구세주로 영접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인간의 존엄과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과 영광을 누렸다. 오늘 날의 동서양의 찬란한 문화의 발달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결과물임을 우리는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진정 그의 탄생의 소식은 우리 개인과 모든 인류의 역사에게는 진정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었다.

과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주인공 당사자에게도 그의 인생이 이러한 즐거움과 영광이 넘치는 삶이었을까? 성경에 기록된 그의 삶의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이었다. 출생 당시부터 당시 통치자의 질투와 노여움에 이끌려가는 인간의 욕망의 무서운 칼날을 피해야 했고, 애굽에서의 피난살이를 통해 생명을 유지했다. 나사렛으로 돌아온 이후 그는 아버지의 목수업을 도우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나님의 성육신인 그가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는 형언치 어려운 많은 고통과 조소와 배신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가 부여한 사명을 가장 충실하게 헌신적으로 수행한 그를 그의 최종 유대인들은 참람죄의 죄명을 뒤집어씌움으로 당시의 극형인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여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을 완성하였고, 그의 새 시대를 열었다. 그의 출생은 새 시대의 출발점이었다. 이러한 그의 고난으로 점철된 그의 처절한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한 메시아로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큰 기쁨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의 성육신의 출생과 고통과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에 온 세상은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되었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가치를 구현하면서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인생을 사는 자가 되었다. 진정 그의 출생은 인류에게 전하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가파른 바위로 이루어진 중국 삼정산에 잔도(殘道)가 개설되어 매년마다 수백만 사람들이 그 산의 아름다운 정경을 누리고 있다. 유튜브로 몇 안되는 인부들이 오고 오는 세대의 수없이 많은 관광객들의 기쁨을 위해 생명을 무릅쓰고 잔도를 개설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문득 가장 영광 중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비우고 인간으로 성육신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의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위해 형언치 어려운 고통의 삶을 살기위해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졌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가족과 이웃, 우리 민족과 세계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자면 나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의 탄생과 고난으로 점철된 메시아적 삶을 통해 보여주셨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들은 한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강생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의 메시아적 삶을 본받아 성삼위 하나님과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큰 기쁨이 되기 위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어떻게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함께 동참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음미하고 다짐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복숙 시인 (산호세한인침례교회)

베들레헴 편지

작은 베들레헴 마을 누추한 말구유  
바람도 쉬어가는 공간에서  
온 인류의 빛으로 태어나신 이어  
지구의 구석구석,  
성령의 등불 환히 밝히옵소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희망찬 목소리 울려 퍼져 평화의 메시지  
함박눈 내리면 좋겠다 응석 부리면  
마음 가득 하얗게 물들고  
당신의 손길 떠올리면  
가슴속 고이는 환희  
모두 당신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희심의 순간 침묵으로 만나는  
이 새롭게 다짐하는 계절  
눈물 한 방울 적셔 있음은 무엇인지요  
당신의 세계,  
한 모퉁이 제게 억찬 축복입니다

베들레헴 마을은 어디에 살아도  
내 안에 있음 알게 하시고  
별이 되어 빛나는 은총 감사하며  
진정 당신은 사랑입니다.

성육신하신 주인공 예수만 바라보자!  
'2019 성탄절,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 소외된 이웃에게 실천해야

성육신하신 주인공 예수만 바라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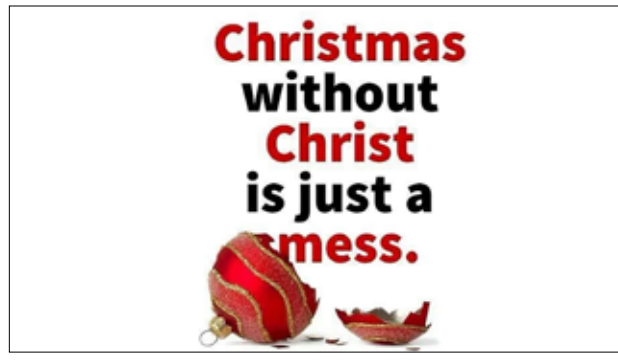
'2019 성탄절,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 소외된 이웃에게 실천해야

"오늘날 성탄절을 제일 먼저 알리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백화점을 비롯해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교회조차 성탄절 행사를 왜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있다."

어수선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다시 성탄이 돌아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가장 큰 기쁨이며, 온 인류가 함께 나눠야 할 가장 귀한 일이다. 그런데 사랑마다 성탄을 축하하는 의미가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선물을 받는 날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만나는 날로, 공휴일로, 또는 다른 사람을 돕는 날로 성탄절을 생각한다. 반짝이는 네온사인과 "세일" 광고를 찾아다니며 더 많이 가지려고 서두르거나 종종 걸음 친다고 성탄절의 참된 기쁨을 찾지는 못한다. 더구나 선물을 구매한다고 그런 기쁨이 오는 것도 아니다. 이 절기의 주인인 구주께 모든 초점을 맞출 때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다.

2천여 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오늘날과 같은 성탄이 아니었다. 천사가 전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것처럼 성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도 이 진정한 의미의 성탄을 누린 사람은 많지 않다. 동방박사, 목자들, 사가라, 엘리사벳 등 소수의 사람에게만 기쁨의 소식을 듣는 순간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던 사람도 있었다. 바로 헤롯 왕이다. 그



에게서 예수님의 탄생이 곧 삼판의 소식이었다. 헤롯 왕과 서기관들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 메시아가 난 곳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

의 왕위를 뺏길까 조바심 내며 증오와 미움의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죽일

모를 꾸몄다. 이들 또한 성탄을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삼판의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기록한 탄생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다. 이 소식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위로의 소식이며 소망의 소식이고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 땅의 먼지와 땀, 질곡의 삶을 싫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될 줄기 위해 오셨던 예수의 탄생이 크리스마스 시즌의 이이다.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정겨운 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감사라는 말에는 포근한 체온이 베어져 있는 듯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줍니다.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아무리 흔하다고 해도 이 말은 늘 들어도 싫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대인들의 타산적인 행동과 말장난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고,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입술로만의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라고 하였습니다.

사랑과 감사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과 감사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 진정한 감사의 응답이 따르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오례 사랑이 자리하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오늘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오묘한 전무후무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라고 하신 말씀에 적시(指示)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고(至高)하신 사랑의 증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지극하신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최고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요일4:9)라고 하였습니다.

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지녔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끄러워 동산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창3:9)라고 하시며 숨어버린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의 범죄결과를 비참했습니다. 아담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수고를, 하와를 "임태하는 큰 고통을"(창3:16-19) 안고서, 생명과(生命果)를 먹으며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에덴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할 이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습니다. 그저 멸망의 길로 열심히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죄악의 늪은 너무나 험악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릴 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처량한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될 어린양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1:21).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한 제물로 지정하셨습니다. 인류는

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1:29)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어린양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도 목숨을 선뜻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우리 위해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서 종노릇하므로 영원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므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가 방치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른의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앞길에는 무수한 장애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살핌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더불어 끝없이 도전해오는 많은 장애요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거해주심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거침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난날들은 흠집투성이어서 쓸모없이 버려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레 22:18-20)라고 하였습니다.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흠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유 1:24).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2:1)라고 말씀한 대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흠집투성이인 우리를 주님이 깨끗이 씻어주셨고,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이 일을 즐거움으로 하셨습니다.

(4면으로 계속)



## 성탄의 기쁨을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사랑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21절

문성록 목사  
(포코노한인장로교회, 전 KAPO총회장)

그 아내를 위하여 가축을 지어 입히시니라"(창3:21). 우리는 여기에서 애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인류의 죄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대안(代案)을 마련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죄를 범한 그들을, 그들을 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요일4:10)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눈이 어둡고 무지하여 하나님도 알지 못했

하나도 없으며"(롬3:10)라고 하였고,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6:23)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우리를 건져줄 사람이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도 없다는 암울한 현상만이 땅 위에 늘려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죽음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할 인류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요일4:9)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일4:10)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오시는 예수님의 형편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제물로" 지목되

살리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길 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야 선지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사53:4)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짐승이 사람들 대신에 희생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끝없이 반복되어야 했고, 또한 불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속죄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 해주셨습니다. 이로써 두 번 다시 희생의 제물이 필요 없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오셨

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 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인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유1:24).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전(贖錢)이 되시므로,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기획, 총감독: 박효우 목사  
극본, 연출: 구영미 전도사

# 예수님의 반짝 대작전



성극을 만들어낸 주역들

일시: 2019년 12월 22일(주일)  
11:00 AM & 7:00 PM  
장소: 풍성한교회  
문의: (213)479-7389, (310)503-3476

\* 성극 공연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310)503-347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교회 291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 목사의 목상

####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스اید장로교회)



### 영화 '증인' 관람 소감

금년 초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증인란 영화를 보게 되었다. 증인이란 영화는 주인공 정우성이 변호사로 나오는 영화인데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었다. 영화 내용을 아는 분은 알겠지만 그 내용을 잠시 설명하겠다.

어느 곳에 한 자폐아 여학생이 있었다. 그 여학생은 공부하지 않지만 부족함도 없는 보통으로 사는 집의 딸이었는데 하루는 한밤중에 자신의 방 창문을 열고 밖을 보는데 길 건너편에 있는 집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사건을 목격하게 된다.

가정부가 그 집의 아들의 청탁을 받아 나이 먹은 아버지인 노인을 살해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가정부는 노인이 자살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폐증을 가진 여학생이 자신이 그 가정부가 죽였다는 사실을 보고 들었다고 증언하자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가정부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인 정우성은 자폐를 가진 여학생을 증인으로 세워서 잔인하게도 자폐증을 가진 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하여 법정엔 가정부의 무죄로 판결을 끝낸다. 그러나 변호사인 정우성은 법정에서 가정부와 노인의 아들이 서로 보며 웃는 것을 보며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진짜 범인은 가정부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다시 자폐증 가진 여학생을 연구하며 증인으로 세우

고자 한다. 변호사 정우성은 자폐증 여학생을 연구하다 그녀가 보통사람과는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그 여학생은 보통 때 길을 갈 때에도 사람들이 전화로 작게 하는 소리도 너무 크게 들려 고통을 받을 정도로 남이 못 듣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안 것이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본 벵타이의 수많은 물방울 표시도 그 개수를 다 계산해낼 수 있는 집중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보고 살인이 일어나는 날 밤에 들은 것이 명확하다는 것을 증명해내려 한 것이다. 그리고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하니 판사는 한 그림을 보이면서 숫자를 계산해 보라하는데 그 개수를 맞춘다. 그리고 법정 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에게 속삭이듯이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보라고 하자 그가 그대로

하자 그 여학생은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가 말한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그때 변호사인 정우성은 그 살인이 나던 날 밤 그 여학생이 무엇을 들었는지 말하라고 한다. 그러자 그 여학생은 그 가정부가 노인을 죽이며 했던 말을 소름끼치게 사투리까지 다 그대로 모방하며 말하는 것이다. 사용했던 단어의 철자 숫자까지 말하면서 말이다. 그 결과 그것이 사실로 들어났고 가정부와 노인의 아들은 구속이 된다.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얼마나 그를 이해 못하고 함부로 판단했을까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고 자기만이 갖고 있는 기질과 환경과 형편이 있는데 다 내 기준으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큰 회개가 나왔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이 처

한 처지에서 말을 하는 것인데 이해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그의 기질과 형편을 잘 이해하고 말을 했다면 더 좋았으리라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 이유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사람은 자신이 비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살다 보면 참 영동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기 전에 상대방의 사정과 형편을 먼저 살펴보는 지혜로운 행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깊게 다짐해 본다. david2lord@hotmail.com

# \$1 자선에도 우리는 도덕적 판단을 한다!

## NPR, 비영리단체 연구 통해 자선과 기부에 따르는 도덕적 딜레마 점검

연말 기부의 계절을 맞으면서 자선과 기부의 불편한 면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우리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돈을 기부할지를 결정할 때, 우리는 일종의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된다. 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곳이 어디인지, 기부의 결과로서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Why Giving Tuesday Raises An Uncomfortable Moral Dilemma).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기부처를 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기리는 뜻에서 양로원에 기부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을 통해 우리는 수학적 계산하게 된다. 어린이의 삶이 어른의 삶에 비해 얼마나 더 가치 있는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과 다른 이의 소득을 증진시키는 것 간의 차이는 얼마인지 등의 계산이다.

우 불편한 일이다. 하지만 '기브웰(GiveWell)'이라는 이름의 비영리기구에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기브웰은 해마다 '가성비'가 높은 기부처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018년에는 기브웰의 제안에 따라 사람들이 기부한 액수가 1억6천 달러에 달했다. 기브웰은 다양한 연구결과와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스트를 작성한다. 만일 당신의 목표가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가장 비용효율이 좋은 방법은 말라리아모기로부터

까? "피하고 싶은 질문이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부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

선단체에서 사용하는 가치비교 모델이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이다. 계산방법은 엄청나게 다양하지만, 각각의 방법에 단점이



### '생명 구하기 vs 빈곤탈출' 대결 적용 기부처 결정을 정부 '현시선호' 방식 채택... 만능공식은 없어

1만 달러를 기부할 생각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는 극빈층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1만 달러를 기부하면 100명의 성인이 극심한 빈곤을 끝장 낼 수 있는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B는 수술이 필요한 극빈층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단체다. 1만 달러를 기부하면 어린이 환자 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100명의 성인을 가난으로부터 구하는 것과, 한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 이중에 무엇이 중요할까?

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모기장을 빈곤에 뿌리는 것이다. 만약 가족단위의 빈곤을 해소하는 것이 당신의 우선순위라면, 기브웰은 현금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안과 같은 돈으로 소를 한 마리 사서 보내는 안이 각각 구체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해 제공해준다. 문제는 기브웰이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비교하려고 할 때 생겨난다. 현금 지원과 모기장 배포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이럴 때는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하는 것일

가 있으니까요." 기브웰의 선임 연구매니저인 조시 로젠버그의 말이다. 최근 기브웰은 '생명 구하기 대 빈곤탈출'의 대결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을 담은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의 특징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 듣지 않았던 목소리를 기반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바로 기부를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담당자였던 로젠버그마저도 결과에 놀랐다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브웰이 이 연구에 착수하게 된 계기는 정부나 대규모 자

있었다. 일례로, 미국 정부 역시 일상적으로 생명을 구할 것인가, 소득을 증진할 것인가의 선택지를 마주한다. 100억 달러의 예산이 들지만 만 명을 살릴 수 있는 환경규제의 시행 여부 같은 문제들이다. 이때 미국 정부는 한 사람의 생명이 900만 달러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치는 계산법을 활용한다. 미국 정부는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에 대한 연구에 기반해 이와 같은 수치를 도입했다. 로젠버그는 현시선호가 "사

어려울 수 있다. 두 가지 방법, 즉 현시선호를 살펴보는 연구와 자신의 선호를 직접 밝히도록 하는 연구의 공통된 문제점도 있다. 이런 연구들이 거의 부유한 국가에서만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빈국의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학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과는 소득증진에 조금 더 가치를 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상황이 절박한 만큼 조금의 돈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둘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한 가지 공식이 만능일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기브웰도 잠재적 기부자들의 개인적인 가치를 따라 맞춤형 기부처 리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기부를 할 때는 늘 이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인식하고, 어떤 계산법을 사용하든 그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1면에서 계속) 김성국 목사는 이날 "아기를 보리니"(눅2:12-14)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어느 주일학교 성탄연극에서 주막집 주인 역을 맡은 아이가 '빈방 있느냐'는 질문에 울면서 '빈방 있다'고 대답한 이야기를 소개하며 "구유에서 나신 겸손한 주님을 성숙하는 날,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감격하지만 지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도전했다. 음악회는 지휘 소유영 전도사, 소프라노 소철화, 메조소프라노 송지혜, 오르간 최희희, 피아노 이송은과 오케스트라, 합창단 등 모두 퀸즈장로교회 교우들로 구성됐다. 퀸즈장로교회는 카네기홀에서 헨델의 메시아를 전곡 연주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주제를 정해 한 부분만 연주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 성숙하신 주인공 예수만 ...

(2면에서 계속) 우리들 중 평범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던 그분의 시작도 우리의 시작처럼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하지만 넘치는 가능성의 평범한 한 아이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기독교 신앙의 대명제의 핵심 "겸손한 마음, 자신을 비워 스스로 가난해진 마음, 자신에게 마땅한 권위와 영광을 포기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 특별히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더 슬프고 외로운 이에게... "당신의 눈물이 곧 성탄절에 태어난 그분의 첫 울음입니다" 라고 위로와 평안을 나누는 절기가 되어 한다. 결국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아 슬픔과 고난과 외로움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는지 주

변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어려움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이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누며 더 사랑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따듯이 맞아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결론으로, 성탄절에 주인공인 예수님이 빠지고 끼리끼리 주고받는 선물과 소외된 이웃은 아랑곳없이 향음만이 오가는 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 2000년 전에도 성탄이 모든 이들에게 기쁜 소식만은 분명 아니었다. 권세 잡은 이들과 통치자에게 왕중의 왕이 오셨다는 소식은 공포요,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헤롯왕은 죄 없는 아기들을 살육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 아기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까닭은 무엇

일까? 그것은 모든 이들이 죄로 인한 아픔이 있었고 흑암 같은 절망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간절히 기다리며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도 안보이고, 이 절망 속에서도 모두들 먹고 살 걱정뿐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사람다운 삶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힘들 정도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탄의 기쁨을... (3면에서 계속) 시편기자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지경에서 보호해주신 하나님을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시 116:8)라고 찬양하였던 것임이

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일 년 내내 편지 한 장 쓰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탄이 되면 괜히 마음이 바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카드를 파는 상점마다 연례 행사처럼 사람들이 붐비니다. 카드를 고르는 사람들의 표정 또한 진지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신 이에게 감사의 보답으로, 나만의 정성과 사랑을 담으려는 노력이 역력합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성탄을 맞습니다. 하지만 성탄의 본디의 의미가 왜곡(歪曲)되고 희석(稀釋)되어가는 세태(世態)의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감사를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뜨거운 가슴으로 영접하는 것이

며,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흥쾌(欣快)히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희생을 널리 칭송하며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참 마음으로 엿드려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말구유에서 골고다까지 이어진 주님의 그 고귀한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안고 그 소망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되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마1:21). 할렐루야! 뜻깊은 성탄을 맞이하는 독자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마다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paulmoon315@gmail.com



###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SB673(R-Mike Morrell-Parental Rights) 지지 캠페인에 모두 참석합시다!

이번 기회를 꼭 잡아야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까지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Tvnext(Traditional Biblic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다음세대 세계관 정립&보호) 단체가 캘리포니아 주류 기독교 단체, 교회들과 YES on SB673 캠페인을 시작하오니 여러분의 기록한 것발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회마다 아래의 Theme을 사용하시면 더 효율적입니다.

YES on SB673 - 자녀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Be The Voice of Your Kids!

YES on SB673 - 자녀 성교육, 학부모의 권리를 되찾자! Take Back Parental Right!

SB 673이 통과되면 "학부모 권리-Parental Rights"를 되찾게 됩니다. 학부모 허락 안에서만 성교육 내용이 용납됩니다. TK-6학년 자녀들이 어떤 수업이든 성(SEX)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도 학부모의 consent(허락)을 permission slip에 서명으로 받아야만 가르치도록 합니다.

#### 투명성 있는 성교육:

모든 자료들(동영상, 워크숍, 게스트 스피커가 누구인지)을 학부모들이 직접 볼 수 있고 미리 알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가 학부모에게 투명성 있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 하는 발의안입니다.

검증된 것만 가르칠 것! 의학적으로 사실적인 것만 가르칠 것, 연령에 맞는 성교육만 할 것!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미 통과시킨 문란하고 난잡한 성교육에 대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내 자녀를 위한 선한 싸움은 학부모와 교회가 꼭 해야 할 거룩한 책임!

1월 15일 공청회가 있기에 1월 10일까지 편지가 도착하게 보내세요. ACTION TO TAKE! 동참 방법: 동참은 신분,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편지쓰기:

Honorable Senator \_\_\_\_\_(이름 쓰세요),  
My name is \_\_\_\_\_ and I live in \_\_\_\_\_ (city 또는 county를 적으세요. 중요!).

I am writing this letter to ask you to support and vote YES on SB673.

As you may have heard, there are thousands of parents and concerned families, including myself on parental rights in California.

I have been very disappointed at the current sex ed. in my child's school district for failing to properly inform or ask me for a consent on my child's sex education at her/his school. I would like to get my rights back as a parent to be informed on ALL materials on sex ed.

ALL materials, including the guest speakers for my child to learn from, need to be clearly communicated to us (또는 me) in a timely manner. ALL schools and school districts must be transparent and give me/us an easy

Senator Ling Ling Chang, Rm# 4062

Senator Marie Elena Durazo, Rm# 5066

Senator Steven Glazer, Rm# 5108

Senator Mike McGuire, Rm# 5061

Senator Richard Pan, Rm# 5114 and

Senator Mike Morrell, Rm# 3056

Rally 꼭 동참하기  
2020년 1월 15일 오전 9시-오후 1시, 1월 15일 새크라멘토에서 Hearing 이 있는 동안 저희 Tvnext는 미국 단체들과 Yes on SB673 Rally를 갖습니다. 오실 수 있는분들과 교회단체는 꼭 참석해주세요.  
꼭 각자의 집주소를 적어서 보내기:



**SUPPORT PARENT RIGHTS SB 673**

access to view all materials and guest speakers for what they are teaching to my child. I will be counting on you to be my voice and my child's voice for better future in California.

Sincerely,  
------(학부모 이름, 시인, 날짜는 밑에).

편지 보낼 곳: 아래의 주소와 RM# 꼭 적으세요. 보내실 때 Senator Mike Morell, Rm@3056 에게도 꼭 보내세요. 왜냐하면, 편지가 분실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예)보낼 주소:  
Honorable Senator(아래 의원들 이름을 적어 넣으세요)  
State Capitol, Room #\_\_(아래 방 번호를 꼭 써주세요)  
Sacramento, CA 95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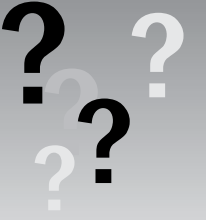
Senator Connie Levya, Rm# 2083  
Senator Scott Wilk, Rm# 3063

교회차원에서 캠페인을 하실 때 한명의 성도가 자기집 주소(sender's address)를 적은 봉투에 넣은 후에 8명의 의원에게 보내야만 합니다.

자료받기  
저희가 만든 Instruction 및 홍보용 동영상과 자료들을 받기 원하시는 교회들은 tvnext.org@gmail.com 새라김 사모에게 연락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http://tvnext.org/2019/12/support-ca-sb673 또는 Tvnext.org@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성탄의 계절입니다. 늘 과거부터 가진 한 가지 성탄절에 의문이 있는데요. 성탄의 주님을 경배하는데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가 같은 날 같은 시간인지요? 아니면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지요?  
-팔로스 버디스 김춘경 권사

**A:** 성경을 깊이 연구해보면 양치는 목동들이 경배한 시간과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시간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목자들보다 최소한 40일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 목자들보다 훨씬 늦게 와서 주를 경배했습니다. 목자가 첫 경배자요 박사들은 두 번째 경배자입니다. 시간뿐 아니라 장소도 다릅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 구유에서 경배했고 박사들은 마태복음 2:11절처럼 "집에서 그 분을 경배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시간차를 성경을 다 같이 찾아서 살펴봐도 좋겠습니다.

1)누가복음 2:1-20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주님을 경배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들에서 양 치던 목자들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목자들에게 알고 왔느냐고 물으니 하늘의 천사들의 지시로 메시아 탄생을 알게 되어 경배하러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크리스마스의 첫 경배자들입니다.

2)마태복음 2:21을 보면 아기 예수는 탄생 후 8일이 되자 할례를 받았고 그 이름을 비로소 예수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8일째에 이름을 짓고 로마인들은 탄생 9일째, 헬라인들은 10일째 되는 날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3)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레위기 12:1-4을 보면 아이를 낳은 여인은 해산직후 불결한 피를 흘

### 목자들 경배 후 40일 후에 동방박사들 경배

림으로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때까지는 의식상 불결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여자는 약 40일 정도가 지나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자신을 깨끗케 하는 제사 즉 결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출생 40일이 지나서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결례를 행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가정이 워낙 가난했는지 돈이 충분치 못해 짐비들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리며 결례를 행했습니다.

4)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한 후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5마일 정도니까 2시간 정도면 걸어서 올 수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이 예수의 출생신고와 호적을 다 필한 후에 어느 집에 잠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가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는 두 번째 경배자입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의 경배는 목자들의 경배 후 최소 40일이 지난 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동방박사가 찾아간 곳은 마구간이 아닙니다. 안정된 집입니다. 마태복음 2:11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5)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기를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속히 도망하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날밤중에 애굽으로 도피하는 것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헤롯 왕이 죽기까지 피신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3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의 경배와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엄연히 시간차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후 최소 40일 이후에 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것으로 해석해야 성경적 해석입니다.

### 웨딩, 장례식 전문

## 사랑을 전합니다

# Florist 나비꽃집 NABI

대표: 장효종(뉴욕 크리스천 코럴)

718-286-9920

email: floristnabi@gmail.com

44-29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인도의 파르디 브힐(PARDHI BHIL)

파르디 브힐인들은 이주해 온 종족으로, 안드라 프라데시, 마드야 프라데시,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주들과 같은 중부 인도의 넓은 지역에 걸쳐 산재해 있다. 그들의 언어는 파르디어이며, 브힐 언어의 일종이다. 그들의 이름은 "수렵(hunting)"을 의미하는 마라티 단어인 파라드(paradh)에서 왔다.



트주는 다양한 이슬람 부족들의 표적이 됐다. 이슬람 지배자들은 몽갈(Monghal)왕조 아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13세기 말에는 구자라트 왕국에 쳐들어왔다. 그러나 힌두교도 마라타족(Maratha)은 몽갈과 싸웠고 다시 구자라트에 하나의 제국을 건설했다. 외관상으로는 당시에 파르디인들은 마라타의 영향 아래 있었다. 이 집단들이 구자라트 지역에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을 때 영국인들이 1817년 세력을 몰고 나타났다. 파르디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어떤 직업이든 갖게 됐다. 오늘날 파르디 브힐인들은 많은 차이를 보이는 하위 집단으로

나뉘었다.

삶의 모습

파르디인들은 주위의 브힐 부족들과는 대조되는 다소 유별난 종족이다. 카스트 제도에 속하는 것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고립된 집단이 됐다. 그들은 신분을 떨어뜨리고 치사한 사회제도에 복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수렵과 구걸, 심지어는 생존을 위해서 도둑질하는 생활을 택한다. 훗전 물건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흠치는 것은 아직 बे지 않은 농작물과 같이 그들이 거래하거나 팔 수 있는 것들이다.

많은 파르디 브힐인들은 봄베이 지역 도처에 흩어져 있다. 그들은 진흙과 나무 막대기로 만든 원시 오두막에서 살면서, 짐승과 새 사냥을 하는 방랑부족이 됐다. 구자라트 북서부의 쿠치(Kutch)에 사는

파르디 브힐인들은 뱀 사냥을 즐기며, 많은 사람들은 뱀을 부리는 사람이 됐다. 많은 파르디 부족들은 바구니를 만들어 팔고, 또 그 밖에 검은 돌로 된 그릇을 만든다.

다양한 파르디 집단들을 서로 구별하는 특징들은 다소 특이하다. 어떤 집단들은 덧과 함정으로 사냥을 하며, 다른 집단들은 마을들을 떠돌아다니며 돌을 갈아서 가옥에 조각 장식을 한다. 치테왈라(Chitewala)인들은 길들인 표범으로 사냥하며, 탄크스카(Thanknkar)인들과 랑고티(Langoti)인들은 매우 강한 범죄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 파르디 집단의 일부는 악어에서 얻은 기름을 팔며, 원숭이 쇼를 공연하기도 하고, 검은 새만을 죽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집단들을 구별하는 특징들 몇 가지는 있다.

대부분의 브힐 종족들의 의식과 같이 파르디인들은 하위

집단 내에서만 결혼한다. 사회에서의 그들의 지위는 가장 원시적인 부족에서부터 총을 가지고 사냥하는 부족까지 이른다.

신앙

파르디인들의 95%가 전통 종교를 믿는다. 그들은 영적 세계를 믿으며 물리적 세계에 미치는 영적 세계의 영향력의 존재를 확고히 믿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집에서 수많은 신들과 여신들을 숭배한다. 그들의 신앙을 다양한 방법으로 숭배하고 달래야만 한다는 것이다.

파르디의 대다수가 미신적 습관과 수세기 동안 그들의 문화에 스며든 다신교를 고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힌두교 영향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인구의 1% 미만만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기독교보다

는 힌두교에 더 애매하다.

이교도 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성경이 역사하는 몇 가지 흥미 있는 징후들이 있다. 한 부족민은 "마을 제사장이 세상의 다른 곳에서는 백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와서 마을사람들에게 참 신에 대해 말해줄 것이라고 했다. 제사장은 우리가 그를 따라야만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선교사들이 파르디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사장과 그의 가족은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됐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는 성경이 파르디 언어로 번역돼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한 길을 예비하고 계심이 분명하며 지금 그들은 자신들에게 참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줄 선교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재판 없이 체포 구금된 베트남 기독교인 186명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 VOM)는 내년 상반기 베트남 현지에서 이곳의 핍박받는 기독교인과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훈련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월 12일 밝혔다.



한국VOM에 따르면 최근 동남아 국가들에서 기독교 핍박이 심해지고 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의 순위를 매년 발표하는 오픈도어 선교교회는 동남아의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을 상위 20개 국가에 포함시키고 '기독교 박해의 새로운 온상'이라 지칭했다.

한국VOM은 특히 핍박 강도가 높아지는 베트남에 주목했다. 한국오픈도어즈의 2019년 세계기독교박해 보고서를 보면 베트남에선 재판 없이 체포나 구금된 기독교인이 지난해 25명에서 올해 186명으로 늘었다.

한국VOM은 지난해 1월 베트남이 '신앙과 종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세운 종교사무 위원회가 합법적으로 기독교를 억압하는 구조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올해 보고서에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베트남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속 폴리 한국VOM 대표는 "예전엔 기독교

인을 감옥에 가갓다면 이제는 생활 밀착형 핍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직장을 잃을 거라 위협하고 폭력배를 사서 공격하거나 집을 파괴하고 토지를 몰수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VOM은 훈련을 통해 베트남의 새신자, 기독교 지도자들과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 2019년의 단어 'they' 에 숨겨진 새로운 의미

올해의 단어로 인칭 대명사 'they'(그들)가 선정됐다. 이 단어에 성 중립성을 담은 새로운 의미가 추가된 게 큰 이유다.



매년 올해의 단어를 발표해온 미국 메리엄-웹스터 사전은 10월 2019년을 대표하는 단어로 'they'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이 단어의 온라인 검색 수가 지난해보다 313%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에밀리 브루스터 메리엄-웹스터 사전 수석 편집장은 "대명사(Pronoun)는 '가다' '생각하다' '가치다'처럼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단어이지만 사전 사용자들에게는 무시돼 왔다"며 "지난 1년간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자주 접했고, 검색량도 극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they' 검색량이 급증한 배경이

성 소수자(LGBTQ) 권리 운동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복수의 사람을 뜻하던 이 단어가 소수자 인권 운동의 결과 제3의 성(性)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단수 인칭 대명사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모넬 오슬로 그레이스는 프랑스 파리 패션위크에서 스스로 제3의 성을 표방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패션잡지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성적 정체성과 패션계 뒷배기를 털어놓아 관심을 끌었다.

제3의 성을 추구한다고 밝힌 영국 팝스타 샘 스미스도 SNS에 이같은 의미의 'they'를 의도적으로 계속 써 화제가 됐다. 또 다른 제3의 성 모델 아야사 탄 존스는 지난 9월 구찌 쇼 캣워크 도중 침묵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메리엄-웹스터 사전 측은 "인칭 대명사처럼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가장 많은 검색어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영어에는 성 중립적인 단수 명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they'가 600년 넘게 써온 의미와 다르게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hey'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라는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의 단어 2위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하원 탄핵조사와 관련이 있는 'quid pro quo'(대가)가 뽑혔다. 이어 탄핵을 의미하는 'impeach'와 뉴욕 메트로 갈라에 오른 작품 제목 'camp' 등도 검색량이 급증한 단어로 주목됐다.

지난해에는 러시아 스캔들 특검 조사와 관련해 'justice'(정의)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고 2017년에는 'feminism'(페미니즘) 2016년에는 'surreal'(초현실)이 각각 뽑힌 바 있다.

#### 무슬림 배제 인도 시민권법 개정안

인도에서 무슬림에 차별적인 시민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달 초 무슬림이 많이 거주하는 아삼주 등 동북부에서 시작된 시위는 12일 연방 의회에서 최종 통과된 이후 동부 웨스트벵골주와 수도 뉴델리 등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통행금지가 실시되며 이어 주요 국가도로와 인터넷이 봉쇄됐다. 또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면서 15일까지 6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다. 뉴델리와 뭄바이에서는 대학생과 경찰의 충돌이 잇따르며 이어 수업 거부 사태까지 나왔다.

지난 10일 연방 하원에 이어 12일 상원을 통과한 시민권법 개정안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등 3개 인접국 출신 비이슬람교도 이주자들이 종교적 박해에 직면해 인도에 왔을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슬림은 소수종교 민족이 아니어서 인도 당국의 보호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무슬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인도국민회의(INC) 등 야당, 인권운동가, 이슬람교도 등은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여기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데다 되레 이번 개정안으로 소수 집단이 탄압받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역시 개정안이 본질적으로 차별적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아삼주 등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접한 지역에서는 개정안으로 인해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돼 일자리 등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중의 경우 불법 무슬림 이주민 수십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b>남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토)	<b>남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차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토예배: 오전 7:30 수요성경: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b>남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토예배: 오전 11:30(영어) 주일 학교: 오전 11:00 필승목회: 오후 5: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b>남가주사랑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월요일 예배: 오후 1:20 영어권 (장소: KO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b>머무는교회</b>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모임: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효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성인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b>열매교회</b>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b>엘피스사역원</b> 원장: 박은성 목사 헬리어로 엘피스 (ELPIS)의 뜻은 소망 (Hope)입니다.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성경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오프	<b>주님새운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회: 오후 7:20(금)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b>좋은마을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주일학교: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M. 예배: 오전 9:45(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본당)	<b>핼(PIM)선교회, 교회</b>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 예배: 10시 50분 11월 17일 3부 예배: 본 주를 주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주를 위해 일하는 본 이혼의 지팡이에 믿음의 손이 사하여 피아서 성구 열매가 열렸더라.	<b>히슬소망교회</b> 담임목사: 김택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수요예배: 오후 7:00

#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88. 김영섭(1888-1950)

김영섭은 1888년 10월 2일 경기도 강화읍 관청리에서 출생했다. 강화 공립소학교를 졸업한 후인 1902년부터 1904년까지 한문을 공부한 그는 군인이 되고자 1904년에 한성 육군 무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년 만에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무관학교가 해체되고 말았다. 군인이 되려던 그는 강화도로 돌아와 강화 사립 보창 학교 사범과에 입학한 것으로 보아 교육자가 되기로 마음을 바꾼 모양이었다. 그는 2년 후 졸업하고 1907년 연안에 있는 사립 봉남학교에 교사로 부임했다.

1910년 여름에 연안에서 고향 강화도로 가는 배를 탄 김영섭은 난파를 당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그는 이 사건을 두고 니느웨로 가던 요나처럼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3년간의 교편생활을 그만두고 그는 교역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가 1911년 일본 와세다대학 문과에 입학하였고 1914년에 졸업하고 귀국하면서 감리교 인천지방 전도사가 되어 교회를 섬겼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일본 아오야마학원 신학부에 입학했고 4년 후 노대학과 함께 졸업하면서 그는 1918년 6월에 인천 내리교회 부목사로 부임했다. 이듬해 12월에 북경에서 개최된 감리교 동아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면서 교역의 지경을 넓혔다.



김영섭 목사

1919년 여름에 연안에서 고향 강화도로 가는 배를 탄 김영섭은 난파를 당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그는 이 사건을 두고 니느웨로 가던 요나처럼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3년간의 교편생활을 그만두고 그는 교역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가 1911년 일본 와세다대학 문과에 입학하였고 1914년에 졸업하고 귀국하면서 감리교 인천지방 전도사가 되어 교회를 섬겼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일본 아오야마학원 신학부에 입학했고 4년 후 노대학과 함께 졸업하면서 그는 1918년 6월에 인천 내리교회 부목사로 부임했다. 이듬해 12월에 북경에서 개최된 감리교 동아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면서 교역의 지경을 넓혔다.

### 미북감리교 뉴욕동부연회서 목사안수 받고 2년간 뉴욕한인교회 담임 사범대졸업 후 귀국, 하와이초대영사 잠깐 외 목회와 교수 활동 전념

김영섭은 1888년 10월 2일 경기도 강화읍 관청리에서 출생했다. 강화 공립소학교를 졸업한 후인 1902년부터 1904년까지 한문을 공부한 그는 군인이 되고자 1904년에 한성 육군 무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년 만에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무관학교가 해체되고 말았다. 군인이 되려던 그는 강화도로 돌아와 강화 사립 보창 학교 사범과에 입학한 것으로 보아 교육자가 되기로 마음을 바꾼 모양이었다. 그는 2년 후 졸업하고 1907년 연안에 있는 사립 봉남학교에 교사로 부임했다.

1910년 여름에 연안에서 고향 강화도로 가는 배를 탄 김영섭은 난파를 당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그는 이 사건을 두고 니느웨로 가던 요나처럼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3년간의 교편생활을 그만두고 그는 교역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가 1911년 일본 와세다대학 문과에 입학하였고 1914년에 졸업하고 귀국하면서 감리교 인천지방 전도사가 되어 교회를 섬겼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일본 아오야마학원 신학부에 입학했고 4년 후 노대학과 함께 졸업하면서 그는 1918년 6월에 인천 내리교회 부목사로 부임했다. 이듬해 12월에 북경에서 개최된 감리교 동아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면서 교역의 지경을 넓혔다.

리도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면 값는 것이 시간문제일 것 같다. 교회 창립부터 목회했던 임종순 목사의 후임으로 지난해 김영섭 목사가 부임했는데 그는 급년도 최근 종결된 연회에서 정식으로 그의 임명이 결정되었다.”

그해 7월 15일에 본 교회 교인 임초의 모친상이 한국에서 있었으니 별세하였다는 부음을 받은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김영섭이 방문하였을 것이다.

그다음 달인 그해 8월에 하와이에서 여자교육 사업에 종사하던 김노디 여사가 미주 한인계를 방문하기 위하여 시애틀에 안착하고 시카고를 거쳐 뉴욕에 도착했다. 김영섭 목사가 주선하여 뉴욕한인교회 예배당에서 임시 공동회를 소집하였는데 김 여사가 등단하여 우리 시국 형편에 관하여 장시간 연설했다. 이후 안정수의 담사와 김헬렌과 정도디 여사의 합창이 있은 후에 안헬렌 여사의 피아노 독주로 이어졌다. 김 여사는 다과회를 하면서 한인의 사업과 노동에 관한 형편을 탐문한 후 오후 8시 30분에 기차로 상항으로 출발했다.

1925년에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인 1백3, 40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이중 3, 40명이 한인사회에 정치적인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다고 신한민보가 발표했다. 이는 뉴욕한인교회의 영어 이름 institute로서의 사명에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본 교회 목사인 김영섭이 헤쳐 나갈 숙제이기도 했다.

세계에 선인하고 세운 우리 독립운동의 최고의 기관으로 지금 유지가 극한하여 심지어 집 하나 완전히 없어 있지 못하고 남의 결방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비참한 지경에 있으므로 두 기관을 다 완전히 유지치 못할 경우이면 우선 그중 제일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임시정부를 남 보기에 창피하지 아니하게 만들어 놓고 그 후 위원부도 여력이 있는 대로 완전히 계속하여갈 예정으로 그리함이라 한다. 좌우간 지금은 위원부가 정부를 반대하는 판 이상한 기관이 되어있으므로 부득이 차를 폐지하라 명령함이라 한다.

이 폐지 명령을 들은 뉴욕 민단 몇 사람은 분노와 감정이 극도에 달하여 4월 8일 즉 수요일 밤에 민단 임시대회를 열고 열렬한 감정과 선동력의 연설을 길게 한 후 며칠 전까지도 정부 명령에는 절대복종, 정부에 절대 옹호를 부르짖던 이 민단 제시는 돌연히 태도를 변하고 가면을 박탈한 후 임시정부의 불복을 토죄하는 성명서를 밝혀 돌리기로 만장일치하였다 한다. 자기 마음에 맞을 때는 정부 옹호, 자기 마음에 틀린 때는 정부 토죄! 아야!! 과연 우리 민족의 정도도 한심한 일이라 하겠도다! 그리고 제일 또 놀랍고도 우순은 일은 1백2, 30명 동포가 사는 뉴욕 한인계에서 다만 3, 40명에 불과하는 민단 제씨가 모여 뉴욕한인을 대표하였다 하고 감히 정부 성토문까지 밝혀 돌린다는는 넘어도 참람한 행동이라 하겠다더라.

얼마 동안 연구하였고, 뉴욕에 와서 몇 병원에서 실습을 몇 달 동안 하였다.

1925년 가을에 뉴욕에 거주하는 동포가 한국 내지에서 수재를 당한 동포에게 400달러에 달하는 동정금을 보냈다는 동아일보 기사를 신한민보가 게재했다. 이는 뉴욕한인교회의 김영섭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 한인교회의 이용직이 호상인의 자격으로 1925년 5월 14일의 신한민보 1면에 아래와 같은 부고를 냈다. “김영섭 목사의 신대인 윤현공이 수환으로 그해 4월 30일에 영면하였사옵기에 이에 부고함.”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김영섭이 한국행을 미리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해가 저물던 때에 그가 귀국하게 된다. 그는 2년간 뉴욕한인교회를 섬겼다.

귀국

김영섭은 뉴욕한인교회를 담임하면서도 그의 컬럼비아사범대학 공부는 계속하였고, 1925년에 본 대학을 졸업하면서 5년간의 미국 거주를 마무리하고 그해 11월 10일에 상항에서 대요 마루 선편으로 귀국했다. 그달 20일경에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서울 중앙감리교회가 급히 이르라는 통신으로 그는 이보다 10일 미리 떠났다. 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는 협성신학교 교수로도 활동하였다.

소양이 풍부하고 사물에 흑하지 않을 40세의 1927년에 그는 정동교회로 옮겨 12년간 성공적인 목회를 감당했고, 26운동을 주창하고 신자가 1년에 한 사람씩만 새 신자를 소개하면 불과 26년에 한국 2천만이 다 신자가 되고도 넘쳐 한국에 천국을 건설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이 기간 그는 숭실기독교대학교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이후 그는 인천 내리교회 담임을 역임했다.

신흥우의 적극신앙단에 참여하는 등 철저한 독립사상을 가진 그가 이승만의 독립운동자금을 둘러싼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시련을 겪은 후 일제 말기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교회를 지키는데 힘썼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그가 하와이 초대영사로 임명받아 잠시 정치인으로 변신했지만 다시 서울중앙교회를 시무했고, 1950년에 향년 62세에 인천에서 별세했다.

damien.sohn@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b>뉴욕몽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사별기도회: 오전 9:30(토) 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b>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45 금요일예배: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5:40(화-금) 성경공부: 오전 10:00 화, 토 Tel: (718)265-2584, www.fc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b>뉴욕새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장흥),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b>뉴욕센트럴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pcofny.org, Tel: (516)387-8940, 8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예배: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청년남성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b>빛과소금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3:20분 청년예배 오후 6:30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30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b>주비전교회</b>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영어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예배: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토론토 가든교회</b>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주일예배: 오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b>멕시코 현지인 교회</b> 담임목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현지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pe MEX(멕시코)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10)



이운석 목사 (NY 부르클렌제일교회)

### 3권 토마스 아 켈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4)

#### 제3권 내적 위로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와의 대화형식을 빌려 기술함으로 시작된다. 그가 원하는 내적인 위로와 성장에 대해 가장 많은 분량의 글을 단편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외적인 사물에 대해 눈감아 버리고 영적인 것에 눈을 떠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세속의 것을 버리는 자는 복되며, 본능적 욕망을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한 자들을 시험과 위로로 찾으신다. 그리고 악행을 훈계하며 교훈을 가르친다. 세상의 삶에서 시험은 불가피하다. 이 시험을 이기

만 전심을 다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라.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며 평안의 길을 따라 영원히 빛나는 안식처에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격려한다.

#### 제4권 성찬을 위한 경건한 권면

신앙생활을 위해 성찬식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식이며, 부지런하고 열심히 이를 행하려고 권고하고 있다. 신앙생활에서 성찬식이 지나는 의미와 이러한 의식이 생기게 된 역사적 배경 및 그 유익함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는 부지런히 양심을 돌아보아 진실한 회개와 겸손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매일 매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슬퍼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며, 성찬을 경솔하게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거룩한 성찬식에 자주 참여함으로써 하늘에 속한 신비를 점점 더 많이 맛볼 수 있게 되어야 한다.

#### 나가면서

1) 토마스의 열정으로 독서하기  
토마스 아 켈피스가 살았던 시대는 중세 중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기였다. 그러나 어두울수록 아침이 가까이 오듯이, 종교개혁의 여명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토마스 아 켈피스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 개혁과 거룩의 기치(旗幟)를 높이 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상의 씨앗을 뿌린 것과 같았다. 이 책을 평가할 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알

의 객체적인 요소만 가능하던 경향이 짙던 시대였다. 이에 반하여 경건의 흐름은 인간의 내면성을 강조하는 두 흐름이 있게 되었다. 그 하나는 독일의 중심으로 한 '신비주의'의 물결이요, 다른 하나는 '경건의 실천'(Praxis pietatis)을 모토로 삼던, 경건운동이었다. 이들은 토마스가 살아 호흡하던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2)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입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평가해야 할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 마지막 부분인 성찬은 가톨릭주의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비평에 있어서, 이 시대와 종교개혁 훨씬 이전의 시대이며, 종교개혁 시대의 성만찬 논쟁에서 형성된 개신교적 입장을 가지고 그 이전 시대를 비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현재의 성경적 기독교인인 우리로서는 우리의 신앙이 가톨릭적, 수도원적인 성향과 그 신학의 범위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는 바른 평가를 해야 한다.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키는 면에서는 탁월하지만 그 제도와 의식은 여전히

## 타락한 세속에서 경건주구, 예수그리스도 성찰에서 문제해결 가톨릭수도원적 제도와 의식이나 '행위에 의한 칭의' 는 경계

는 자에게는 만나가 주어지고 게으른 자에게는 온갖 괴로움이 따를 것이다.

그는 시련과 고통에 대해 깊이 묵상한다. 시련과 고통은 영혼을 위해 진실로 필요하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조직 사회의 구조와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지혜롭게 대응하면 우리는 "강한 믿음과 용기"를 보일 수 있게 된다. 시련은 또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 될 수 있다. 시련을 당하고 인내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의 보상을 받는다.

잠든 평안은 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구하는 것이며, 사람이나 다른 것들에게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신음을 지키고 말을 조심하라. 세상에서 비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노고가 따른다. 이 노고를 견디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그저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피와 그 희생의 거룩한 뜻을 살피고 있다. 토마스는 성찬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나타나며, 성찬을 자주 행함이 유익하다고 한다.

아 켈피스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신 성찬을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라고 한다.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간구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즐거워하라고 한다. "거룩한 성찬식에 자주 참여함으로써 하늘에 속한 영원한 신비를 점점 더 많이 맛보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건 양식은 신앙의 세계이지 언어의 논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어는 조직적으로 분석하고, 분별하고, 현상을 객관화시킴으로써 좋고 나쁘다는 논쟁을 하게 한다. 그러나 신비의 영역에서는 말없이 직관으로, 감정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또한 성찬식의 신비가 크며, 따라서 그것을 집행하는 인도자가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 또한 성찬식을 위하여 어떠한 마음의 준비가 필

지 못한다면 중세의 신비주의 사상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배타적 거룩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은 타락한 세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했던 토마스의 열정으로 읽어야 한다.

토마스는 주변 세계보다는 자신의 세계에 더 관심을 두었다. 객관적, 사변적 사유보다는 내면적, 체험적 종교가 그의 진정한 실존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가 외적인 요소에 아예 무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는 세상의 흐름을 꿰뚫고 있었으며 그 문제해결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찰에서 풀고자 했던 수도자였다. 그의 수도원 생활은 세상을 향한 적극적인 다른 양태였을 뿐이다. 따라서 주변 세계 없는 토마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그의 성숙한 그리스도 성찰도 태동하지 못했을 것이다.

중세 말기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등지고, 이성을 가지고 외부

가톨릭적 수도원적 제도 안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책이 '행위에 의한 칭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중심흐름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흐려질 위험이 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언어를 빌리자면 '모범이신 그리스도'와 '신물이신 그리스도'를 잘 구별해야 한다.

"신물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 그러나 모범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든다. 행동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는다. 행동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 은혜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다. <12면으로 계속>

##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 도대체 그놈에 권력이 무엇이지?

#### 참고성경: 열왕기하 9-17장

권력 맛보는 즉시 중독현상을 심히 일으킨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러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가 이스라엘 왕들의 치세를 말할 때에 자주 등장 반복되는 문구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이방인보다 약한 가증한 행위를 얼굴도 붉히지 않고 행함을 어찌 그리도 길히 참아 보시며 기회를 하염없이 주어도 도무지 알아들을 귀가 없는 암흑기의 남북 왕조 왕들이다.

아하스는 숫제 앗수르의 다메섹의 이방 신전을 본받아 하나님을 버리고 목숨 걸고 이방신을 섬기더니 결국 섬기던 이방신들의 나라에게 이스라엘이 먹고 아예 이방 신들이 공식적으로 드굴거리는 신들 중 하나로 식민지의 신으로 하락한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 때 앗수르에게 망해 잡탕나라 사마리아로 전락한다. 남방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지시대로 입 다물고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께 전심으로 웃을 짓고 매달린다.

#### 사랑하는 주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맛에 동화되는 건 당연하지요. 풍부한 물질이 결국 독약이네요. 차라리 뼈뺀 가운뎃 절약하며 이웃과 나누고 사는 흥분한 정서가 아름답습니다. 조금만 배 불러져도 하나님을 등지는 인간이 슬픔입니다.

히스기야가 나라가 풍전등화가 되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백성들과 함께 구국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죄의 길을 즐겨가며 힘써 반역하는 쓰레기 인생들이 조금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도 어쩔 줄 모르는 주님의 녹는 애간장을 보며 마음이 너무도 몽글합니다. 현 한국의 어지럽고 혼란한 시국을 보면 마치 이 때와 비슷합니다. 온 나라의 믿는 자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엎드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 내길 눈물로 앞드립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너무나 크고 커서 감읍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heleen55@hanmail.net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046	<b>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양 회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b>벤델교회</b>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목회, 위, 중, 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대위헌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 위, 위, 중, 고등부: (주일)오전 11:00, (토)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b>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b>알칸사 제자들과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b>앵커리지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소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b>영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b>킬린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영예배: 오후 7:0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토요일모임: 오후 3:0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1), (254)501-4933(2)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www.jkc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벽장 속에 있는 세 그리스도인



강인국 목사 (미시안나한인교회)

벽장 속의 그리스도인(a closet Christian)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벽장 속의 그리스도인을 목상하다가 깜짝 놀랐다. 그 캄캄한 벽장 속에 또 다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벽장 속에는 도전의식이 없고 감격도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만 벽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벽장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은밀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는 것을 발견하였다. 주님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마 6:6)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종종 이 자세를 잊어버린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대중 앞에서 사람

을 의식하여서 유창한 언변과 구구절절한 내용과 거룩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에 점점 익숙해져 가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모습은 점점 빈약해져가기도 한다. 그 어두운 벽장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두려운 가슴을 부여잡고 캄캄한 아늑함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였고, 고독감과 절망감을 끌어안고 호렙 산의 한 동굴에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엘리야가 보

였고, 망나니 춤을 주던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며 위협과 살기등등한 자신의 개성이 마모되어 없어지기까지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하던 바울의 모습도 보였다. 주님께서는 은밀한 벽장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일하시기를 즐겨하신다.

셋째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었다(요20:19).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주님이 없어지자 상실감에 빠졌고 자신들을 향하여 닥쳐 올 박해가 두려워서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아걸고 깊은 벽장 속으로 숨어들었다.

역사에 보면 수많은 신앙인들이 박해로 인하여 캄캄한 벽장 속으로 피해 들어갔다. 그

곳에는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의 미로 같은 동굴로 숨어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고, 로마 황제의 무서운 칼날을 피해서 카파도기아 동굴로 숨어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며, 나치 같은 독재자들의 총칼을 피해서 어두운 벽장 속에서 두려운 눈망울로 벽장의 문고리를 바라보던 안네(기독교인인지는 모르지만)와 같은 사람들이 보이며, 한국과 일본 등지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움막이나 외진 곳으로 피해야 했다. 그리고 현대에도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이슬람 등의 나라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옷장이나 지하교회에 숨어서 생명을 내어놓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 어두운 옷장 속에 그들의 눈물과 핏자국이 점점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복음이 부끄러워서 벽장 속

에 숨어있는 사람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보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눅9:26)고 말씀하신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도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성도는 담대하게 벽장으로 부터 나와야(coming out)한다.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해방을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공언하고 자랑하고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성도는 기도를 위해서 잠시 벽장 속으로 들어가지만, 다시 벽장에서 나와서(coming out)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박해를 피해서 벽장으로 숨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본/사/방/문

성극 '예수님의 짝 대작전' 극본 연출 맡은 구영미 전도사(풍성한교회, Santa Monica College 강사)

성탄절을 맞아 LA 한인타운에 소재한 풍성한교회(담임 박효우 목사)에서 성극 '예수님의 짝 대작전'(극본/연출 구영미 교수)이 22일(주일) 오전 11시, 오후 7시 두 차례에 걸쳐 막을 올린다. 16일 본지를 방문한 구영미 교수(풍성한교회 전도사)는 성극을 소개하며 많은 이들이 관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부활절에 올려진 성극 '빈무덤'의 한 장면

'예수님의 짝 대작전' 팀은 프로 연극배우를 비롯해 전 TV 탤런트와 성도들로 구성됐다. 이 성극 팀은 이미 지난 4월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 '빈무덤'이라는 연극을 공연한 바 있다.

'예수님의 짝 대작전' 극본과 연출을 맡은 구영미 교수는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제목을 주시고 대본도 주셨다"며 "팀원들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도로 이기고 나아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기쁨은 마치 지상천국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 같았다"고 고백한다.

앞으로 이 성극은 인터넷 방송에 올리고 양로원 공원이나 타 교인들과 불신자들을 초대해 전도의 도구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영어로 번역해 해외 문화선교사역을 감당할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앞으로의 비전도 덧붙였다. 구영미 교수는 대학 시절부

터 오페라 및 오케스트라 공연, 연극에 몰두했던 예술가다. 그의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해외 문화선교사역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고 귀뻐하며 이미 영어 성극을 통해 기쁨과 웃음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다고 들려준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는 최첨단 문화선교사역을 세계선교사역에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계신다고 말한다.

말씀전파를 법적으로 금지한 곳도 문화사역은 할 수 있고 점점 선교사역에 펍박이 가해지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문화선교 사역을 통한 문호는 열어주고 계신다며, 그 예로 아무리 복음이 법적으로 금지된 곳이라도 문화사역이 아직까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선교



본사를 방문한 구영미 교수

지의 학교나 단체들이 제목만 보고 허락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그러기에 일단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시켜 주시고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그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연극이나 뮤지컬, 몸전양 등을

무대에 올릴 수 있다는 것. 한편 구 교수는 이 사역에 동참할 스텝들을 찾고 있다. 배우뿐 아니라 조명, 음향, 소품, 의상, 무대장치, 홍보, 식사 담당, 차량제공도 문화선교사역의 중요한 부분이니 연기가 안 돼 망설이는 이들도 대거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구 교수는 이번 '예수님의 짝 대작전'을 위해 포스터를 인쇄해서 교회마다 홍보를 부탁하고 초대권을 배포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성극이 올려질 수 있도록 물질양면으로 도우신 풍성한교회 박효우 목사님과 당회원, 그리고 이 성극을 위해 밤을 새워 기도해준 중보기도 팀에게 감사의 말도

진정한 성탄절 선물, 누가 준비하나...

잊지 않았다. 본 성극은 2019년 성탄절에 거지로 분장하고 오신 예수님께 누가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지 살피는 내용으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도록 제시한다.

이 연극 공연을 원하는 교회나 한인단체들은 구영미전도사(310-503-3476)에게 연락하면 된다.

구영미 교수는 중앙대학교 음악학과(B.A.), Mannes Music of College, N.Y Theological Seminary, 장로 신학대학(M.Div)을 졸업했으며 Santa Monica College 강사, 풍성한교회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성자 기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후원의밤 행사에서 최규남 총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실시간 원격강의 등 소개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후원의 밤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총장 최규남 박사) 후원의 밤이 12일 오후 6시30분 부에나 팍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다.

제임스 조 교수 사회로 시작된 후원의 밤은 김현완 교수 오프닝 기도, 내빈 인사소개, 최규남 총장 환영사로 이어졌다. 최규남 총장은 "GMU는 그동안 다양한 장학혜택으로 생명을 주는 마음으로 학사운영을 해왔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중국학생 24명 보내주셨다. 생명을 받게 되는 귀한 일이라 생각된다"라며 "앞으로 GMU가 생명을 주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구자혁 교수가 원격강의에 대해 설명했다. 구 교수는 "선교지 신학교육이 무들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서

비스망이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에서 원격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GMU는 줌(Zoom)을 통해 실시간 원격교육이 디자인됐으며 원격교육 시 교수와 학생이 자유롭게 토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기홍 이사장이 '제자를 세우는데 투자합시다'(행 16:1-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자카리아 보트로스 목사가 축사 및 콤팩트 관점에서 본 GMU선교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재학생 유미향 전도사, 나디아 자매, 그리고 백성렬 교수가 간증했다. 이날 행사는 신창섭 목사(샌디에고갈보리교회)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울신대 남가주 동문회 주관 제회 존경하는 동문초청 좌담회에서 허경삼 원로 목사가 후배들의 질문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2대 총회장으로 이우호 목사 재선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정기총회 및 전국지도자대회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총회장 이우호 목사) 제 2차 정기총회 및 5차 전국지도자대회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부에나팍에 위치한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이 함께 찬양, 기도, 예배, 강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일 선교사 부부가 10여년간 공산국가에서의 사역을 소개했으며, 몽골에서 국립병원 부총장인 김정용 원장, 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 최화량 목사, 성시화운동 한국방문과 광야교회 광화문 이승만 광장을 방문 후 식별한 김승현 회장, 지역사회에서 기독교리 강론을 펼치고 있는 미란 마이

스 목사 등이 간증했으며, 금병달 목사가 기독교가정상담사역에 대해 신인철 목사가 멕시코 양로원선교사역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우호 목사가 제2대 총회장으로 재선되었다.

▲문의: (714)865-9648 (정리: 박준호 기자)

제회 존경하는 동문초청 좌담회 서울신학대학교 남가주동문회 주관

서울신학대학교 남가주동문회(회장 김기동 목사)가 주관한 제 1회 존경하는 동문초청 좌담회가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 오렌지중앙성결교회(담임 유원선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1부 예배는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사회(회장 안

총기 목사) 주관으로 열려 차광일 목사(한빛성결교회)가 '주님의 사람답게 살자'(딤후 4:9-11)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동문회 주관으로 총무 안신기 목사의 사회와 부회장 김희창 목사의 기도 후에 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 강사로 초청된 금년 96세의 허경삼 목사는 최근의 건강상태, 은퇴자의 삶, 목회자 부부관계, 목회자의 자녀교육, 목회자의 취미생활, 이민목회의 어려움 등에 관해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교훈적으로 전했다.

(11면으로 계속)



전유니버시티 '크리스마스 샬롯' 공연에서 나성균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전유니버시티 '크리스마스 샬롯' 공연

샬롯에 위치한 전유니버시티(총장 전기현 장로)가 전그롭과 함께 진행해온 크리스마스 샬롯 공연이 올해도 지난 7일 열렸다.

공연은 이영기 학장 사회로 나성균 목사의 기도와 총장 전기현 장로의 인사와 함께 먼저 재학생들의 발표회가 있었다.

2부 순서로 교수들과 수준 있는 전문가들의 연주가 진행됐다. 전유니버시티 오케스트라와

다민족합창단(지휘 박세정 교수)이 수준 높은 연주와 마지막에는 김정균 지휘자와 강지영 교수가 듀엣을 했다. 마지막 곡으로는 온 청중과 함께 헨델의 할렐루야를 합창함으로 마쳤다.

공연 후에는 친교실에서 만찬을 하며 참석소감과 공연, 학우들의 실력 향상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전유니버시티)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2차 정기총회

# 동부교계 게시판



## 오른손구제센터 일일잔치

오른손구제센터(대표 안승백 목사)가 주최하는 “싱글맘, 극빈자, 장애우 등 어려운 이웃돕기 일일잔치”가 12월 21일 (토) 오전 11시-오후 6시 뉴욕은유연합교회(35-24 Union St. Flushing)에서 열린다. 행사를 위해 후원(후원금, 생필품 및 의류, 식품, 물품 등)을 받고 있다.

▲문의: (646)233-6722

## 뉴욕실버선교 합창제

뉴욕실버미션(회장 김재열 목사)이 주최하는 뉴욕실버선교 합창제가 2020년 2월 9일(주일) 저녁 5시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을 선교중심 도시로” 주제로 14개 교회가 참가하며 8개 합창단이 찬조출연 한다.

▲문의: (917)963-9356

## A/G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 2020신년금식성회

하나님의성회(A/G) 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가 주최하는 2020신년금식성회가 2020년 1월 1-2일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롬3:10-2) 주제로 열린다. 기도회 일정은 1일: 5:45AM, 10:30AM, 3:00PM, 7:30PM 2일: 5:45AM, 10:30AM, 3:00PM. 강사는 김남수, 허연행, 김명옥, 황록, 이미선, 김창만, 이성달 목사.

▲문의: (718)31-7800

## 메릴랜드 EM 청장년 찬양의 밤

2019 메릴랜드 EM 청장년 찬양의 밤이 12월 28일(토) 오후 5시 하늘비전교회(담임 장재웅 목사)에서 열린다. 두나미스위십팀 주관으로 지역교회들이 후원한다.

▲문의: (410)200-3859, (240)643-7717



뉴욕호신장로교회 성탄축하 자선음악회를 마치고 문석호 담임목사가 김원익 선교사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 스코틀랜드 교육선교 후원

### 뉴욕호신장로교회 성탄축하 자선음악회

스코틀랜드 교육선교를 위한 성탄축하 자선음악회가 12월 15일 저녁 뉴욕호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문석호 목사는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복된 일”이라며 “잘 알려진 헨델의 메시아는 먼 옛날 인류의 희망으로 오셨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인생을 위해 고난과 죽음을 겪으셨던 ‘고난의 그리스도’, 세상 죄악 해결을 위해 다시 오실 ‘영광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로 외치며 성도가 누릴 영생의 축복을 고백하는 장엄한 곡”이라고 소개했다.

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교실을 열고 지속적인 북음 전파의 계획과 소망으로 이 음악회를 열었다”고 말하고 현장에서 성경교실을 운영하는 김원익 선교사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음악회는 서은희 집사 사회로 한미 국가제창과 스코틀랜드 선교회 동영상 상영, 인사 및 내빈 소개, 축사 김홍석 목사(전 뉴욕교회회장), 기도 이준성 목사(뉴욕목사회 회장)에 이어 시작됐다.

지휘 양근식 장로, 소프라노 사바나 그린, 알토 이은주, 테너 루이스 요, 베이스 에드워드 홀스와 호신장로교회 찬양대, 오케스트라가 협연했다.

파트1 예언탄생, 파트2 수난 속죄, 파트3 부활영생으로 나뉘 53번까지 전곡이 연주됐다. (유원정 기자)

# 가슴 따뜻한 신년하례만찬 되도록...

## 뉴욕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1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이 주최하는 2020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1차 준비기도회가 지난 12월 17일 오전 10시30분 뉴욕교협에서 개최됐다.

회장 양민석 목사는 “지금까지 매년 해오던 신년하례를 이번에는 그 의미를 더하기 위해 행사 전에 리셉션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하례 3, 40분전에 옆방에서 간단한 다과를 하며 대화의 시간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또 “남편의 목회를 뒤에서 돕느라 수고하는 사모들과 어려운 이웃들 100명을 초청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신년하례 만찬이 가슴 따뜻한 모임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기도회는 김희복 목사 인도로 기도 백달영 장로, 말씀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1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준성 목사, 합시통성기도 △제 46회기 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을 위해(김희복 목사) △뉴욕교계(교협, 목사회, 장로회, 이사회)를 위해(박성원 장로) △한국, 미국과 북한을 위한 기도(김정숙 목사) △차세대와 청소년(1.5세, 2세)을 위한 기도(김신영 목사), 광고 이창종 목사, 축도 양민석 목사 순

서로 진행됐다.

이준성 목사(뉴욕목사회 회장)는 “시대적 치유”(렘8:18-2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한국과 뉴욕 모두 시대적으로 힘

든 시기다. 치유가 필요하다. 상처의 원인은 첫째,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며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백성의 상처와 평강을 위해 통곡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길르앗엔 유향과 이사가 있다, 즉 치유의 길이 있다.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개혁과 갱신을 통해 치유 받자”고 전했다.

한편 2차 준비기도회와 1차 입실행위위원회가 12월 27일(목)에 열린다. 장소 미정.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 만찬은 2020년 1월 16일(목) 저녁 7시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교협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예약을 받는다(1월8일까지). 참가비는 일인당 60달러이며 후원금도 받는다(718-279-1414). (유원정 기자)



뉴욕나눔의집 '나눔 디너콘서트'에서 나눔합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 중독자/노숙자 육적영적 심터

### 뉴욕나눔의집 '나눔 디너콘서트' 성료

뉴욕나눔의집이 주최한 나눔 디너콘서트가 12월 15일 오후 5시 KCS(한인봉사센터)홀에서 열렸다. 1부 예배, 2부 콘서트 후 만찬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뉴욕나눔의집 대표 박성원 목사는 “미주한인노숙인 무료 쉼터” 나눔의 집에 대해 “2011년 식사제공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숙식을 제공해 중독자와 노숙자들에게 치료와 재활, 자립의 삶을 제공해왔다. 현재 2, 30명이 거주하며 하루 4회의 견경회를 갖고 있다”며, “나눔의 집은 평화롭다.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들이 자립하면 지역사회의 일꾼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진다”고 소개했다.

예배는 박진하 목사 인도로 개회기도 박성양 장로(극복포럼회장), 성경봉독 최재복 장로(이사장), 설교 방지각 목사, 나눔소개 박성원 목사, 나눔합창단 찬양, 축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이것을 기억하라”(눅16:19-2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성을 가진 인간은 생각을 잘못하면 평생 불행해진다. 본문에서 말하는 3

가지 생각은 첫째,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는다. 둘째,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섰다. 셋째, 최후의 심판 날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평가하시는가에 대해 생각하고 후회하지 말고 공허의 마음을 갖고 때를 놓치지 말고 영적 풍요를 누리라”고 전했다.

축사는 양민석 목사(뉴욕교협회장), 장동신 목사(뉴저지 교협회장)와 피터구 뉴욕시의 원, 론김 뉴욕주상원의원(대독), 그레이스맹 하원의원(영상) 등이 했다.

2부 콘서트는 오영아 KCBN 편성국장 사회로 경배와 찬양, NYMAS 양상블, 사모합창단, CBSN 김인순 무용단장, 제시유(&양상블), 이창종(수빈, 예빈, 피아노 에스더박), 뉴욕여성밀알선교협창단, 월드밀알선교협창단 등이 공연했다.

이날 행사는 구자범 목사(미주동부총신대원 동문회장) 축도로 마쳤다.

한편 뉴욕나눔의집 웰터 운영을 위해 1구좌당 20달러로 후원천사가 될 수 있다.

▲연락처: (718)683-8884 웹사이트 www.nanoomhouse.com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연합회 제10회 정기총회 1부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신임회장에 송윤섭 장로 선출

### 뉴욕장로연합회 제10회 정기총회, 회칙 (시벌) 추가

뉴욕장로연합회 제 10회 정기총회가 12월 16일 저녁 7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임원선거에서 신임회장에 송윤섭 장로가 선출됐다.

송윤섭 장로는 회장인사에서 “지난 10여년간 전임회장들의 노고와 수고의 바탕위에 2020년 한 해를 열심히 섬기겠다”며 “성령에 의지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연합회가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하고, 뉴욕교계에서 존경받는 장로연합회가 되도록 회원들의 후원을 당부했다.

회장 김영호 장로 사회로 진행된 2부 회의에서 △회칙개정에서 제 27조(시벌)을 (상벌)로 바꾸고, 제 2항에 시벌, 제 3항에 시벌의 종류, 제 4항에 해벌을 추가했다.

또 지난 회기동안 △뉴욕교계의 행사에 참여한 것과 자체 행사인 다민족선교대회, 춘계 야유회, 추계 가을단풍 관광 등에 대해 사업보고를 했다.

△재정은 총수입 45,419.44달러, 총지출 41,095.37달러, 잔액 4,324.07달러로 보고했다. (유원정 기자)

임원선거는 박용기 장로와 송윤섭 장로를 추천했으나 박용기 장로가 사퇴하고 송윤섭 장로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들어가 총 22중 17표를 얻어 송윤섭 장로가 선출됐다.

회의에 앞서 한 예배는 김주열 장로 인도로 기도 백달영 장로, 성경봉독 배상구 장로, 설교 이창종 목사(뉴욕교협 총무), 광고 신승룡 장로, 축도 이창종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창종 목사는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가자 됩시다”(히 11:1-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께 처음 예배를 드린 아벨과 가인 중,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형식적으로 드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첫째 성령의 힘으로 예배하는 것이며 둘째,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며 셋째, 예배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뒤야 한다”고 말하고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장로성가단 2019 송년감사예배를 마치고 단원 부부들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 했다.

## “영과 육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

### 뉴욕장로성가단 2019 송년감사예배

뉴욕장로성가단 2019 송년 감사예배가 12월 10일 저녁 7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렸다.

단장 김재관 장로는 “지난 한 해 동안 장로성가단을 인도해 주시고 단원들의 영과 육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며, “모일 때마다 단원 100명을 목표로 하나님께 통성 기도했다. 올해 10명의 신임 단원이 가입했고 현재 80여 명이다. 또 금년에 독일 찬양선교를 은혜롭게 다녀온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오늘 함께한 단원들과 참석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1부 감사예배는 총무 송윤섭 장로 인도로 정권식 장로가 대

표기도하고 장세할 장로의 성경봉독 후 김재관 장로가 팬플릿 특송을 했으며, 김바나바 목사(단목, 퀸즈한인교회 담임)가 “예배자 그 위대한 이름!”(레8:30-3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재관 목사의 환영인사 이어 축사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장 강현석 장로, 감사패와 감사장 증정이 있었다.

김바나바 목사 축도 후 2부 만찬에 이어 찬양과 장기자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감사예배는 뉴욕교협 부회장 손성대 장로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 “예수 탄생 영적 체험하는 성탄절 되길”

### 미남침례회 뉴욕뉴저지 한인지방회 연합송년모임

미남침례회 뉴욕과 뉴저지 한인지방회가 연합으로 개최하는 송년 및 성탄축하 모임이 올해는 12월 10일 오후 6시 뉴저지등대침례교회(담임 김화용 목사)에서 열렸다. 뉴욕과 뉴저지 지방회는 목회자가주 수련회, 연말 모임, 야유회 등을 연합으로 열고 있는데 신년 1월에 또 하나의 연합모임을 추가했다. 1월 7일(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크리스천아카데미 수양관에서 신년연합기도회를 갖는다.

1부 예배는 인도 노순구 목사(리버데일교회), 기도 박춘수 목사(뉴욕 회장, 뉴욕마하나임 선교교회), 성경봉독 신은철 목사(새문침례교회), 특별찬양 뉴

저지지방회 목사 부부들, 설교 허걸 목사(뉴욕한신교회), 헌금 특주 김재용 목사(영원한교회), 헌금기도 윤양필 목사(라이프교회), 광고 박근재 목사(시나브로교회), 축도 김영삼 목사(즐거움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허걸 목사는 “구유에 눕혀진 구세주”(출2:1-4, 눅2:1-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또 온 인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큰일에 감격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에는 특별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맞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한다”라며, “예

수님은 결코 거창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단절되고 죽은듯한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불꽃처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룩한 사건이 성탄절 사건이다. 여러분의 영혼의 세계에 새로이 촛불을 비추고 생명의 사건을 새롭게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2019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부는 노기송 목사(새예루살렘교회)의 만찬기도 후 뉴저지등대침례교회 등이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하며 친교 하는 시

간을 가졌다. 특별히 아리조나에서 북미원주민선교를 하고 있는 이영호 선교사부부와 뉴욕에서 교회개혁 준비를 하고 있는 이천수 목사의 아들 이태진 목사도 참석해 부친과 자신의 책들을 선물했다.

이어 박근재 목사 사회로 성경퀴즈 등을 하며 지방회가 준비한 푸짐한 선물과 각자 준비한 선물들을 교환했다. 모든 순서는 박진하 목사(퀸즈침례교회) 기도도 마쳤다. (기사제공: 미남침례회 뉴욕뉴저지 한인지방회)



미남침례회 뉴욕뉴저지 한인지방회 연합송년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WMO 시리아 난민 프로젝트에 대해 김정환 선교사가 설명하고 있다

### 필요로 하는 아이템 보내기 착수

#### KWMO 시리아난민프로젝트 실시

KWMO(대표 김정환 선교사) 시리아난민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KWMO는 요르단, 레바논, 터키, 이라크 등지에 마련된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11월 16일 발족모임을 갖고(본보 1756호) 모임을 가져왔다.

14일 오후 2시 선미니스트리 GMAN 컨퍼런스룸에서 모인 시리아난민프로젝트 모임에서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촌 상황에 대한 현지 정보가 정리돼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돼 모였다.

김정환 선교사는 “요르단 자타리 난민캠프에 솔라판넬 보급에 대해 생각했었는데 현장에선 비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며 “현지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UN보고서에 의하면 난민캠프에 신생아가 매일 20명 정도 태어나며 5세 이하가 20% 있고 싱글맘이 전체가구의 20%에 달한다”고 말했다.

요르단 현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유동식 박사는 “요르단 현지 비영리단체인 The Jordan Hashemite Charity Organization for Relief & Development(JHCO)

에 냉동창고를 제외한 바 있다”며 “난민의 상당수가 캠프 바깥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캠프에 들어갈 경우 통제를 받아야 하기에 난민들이 캠프생활을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박사는 “JHCO에서는 난민들이 필요로 하는 품목들을 조사한 목록이 있다. 그것에 준해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KWMO측은 현지 난민들은 무슬림이라 기본적으로 복음이 접해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아이템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지의 겨울은 체감온도가 섭씨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등 매우 추운편이며 눈이 많이 내리기도 한다며 난민들에게 전기장판과 담요가 필요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캠프 전기공급은 하루 8-10시간이지만 2020년 1월부터 독일정부 지원으로 전기공사를 하게 돼 내년하반기부터는 100%전기공급이 이뤄지게 된다. KWMO측은 시리아 난민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관심을 촉구했다.

(박준호 기자)



플러 한인동문회 가족송년모임행사에 참석한 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플러한인동문회 가족송년모임

플러한인동문회 가족송년모임이 플러한인동문회(회장 박진구 목사) 주최, 플러 한인 M.Div.동문회(회장 신동희 목사) 주관으로 지난 8일 오후 5시30분 새장로교회(담임 원영호 목사)에서 열렸다.

신동희 목사(16대 M.Div 동문회장)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이영우 목사(동문회부회장/비

전교회)가 기도했으며 문일명 목사(선한목자장로교회가 맡음을 전했으며 원영호 목사가 축도했다.

이어 열린 친교시간은 박세현 목사(예수로교회) 사회로 동문들의 삶과 사역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리: 박준호 기자)

### KVMCF SC 따뜻한 사랑 전하며 송년행사

#### 비전시각장애인선교회와 탈북자선교회에 성금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KVMCF SC 회장 김희창)는 14일 오전 11시 LA말씀새로운교회(담임 김희창 목사)에서 송년축복과 정기총회 행사를 가졌다.

김희창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총회 경과보고에서 감사 원태어 제독은 현 임원진은 KVMCF TIMES를 9회 발행해 분회활동을 홍보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임원선거에서 현 회장을 비롯한 하자가 없는 임원진을 연임하기로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연임 선출된 김희창 회장은 부회장단 보강을 총회 후에 결정해 그룹카톡에 보고하기로 했다.

1부 송년예배는 최정학 부회장 인도로 김영구 목사 기도, 오재식 회계 성경봉독, 한아름 여성합창단(지휘 이경호 목사) 찬양 후 육군군목 출신인 고남철 목사가 ‘가나안을 바라보며’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최정학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본회는 박상구 국제오네시모션교회장의 기도로 오찬교제를 하면서 육군 9사단 근무시절에 시각을 잃은 사고를 당한 추영수 목사가 이끄는 비전시각장애인선교회와 탈북자선교회 분회 봉사자에 선교금 전달과 예비역 베테랑스에 정성스런 식사 봉사를 돕는 상록수 식당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회장 김희창, 부회장 최정학 장로 차기학 목사, 총무 백소피아 전도사, 서기 최만규 집사, 회계 오재식 장로를 유임하기로 하고, 부회장단을 보강하기로 하고, 계속 회원확보에 매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신년모임은 1월 11일(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11시에 임원취임식 행사로 LA말씀새로운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213)268-9367



KWMO 시리아 난민 프로젝트에 대해 김정환 선교사가 설명하고 있다



GIFT 상담치유연구원 MBTI 대화기술 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GIFT상담치유연구원 MBTI 대화기술 세미나

GIFT상담치유연구원(설립자 조셉전 박사, 리더아 전 박사)이 주최한 MBTI 대화기술 세미나가 지난 7일 GIFT Counseling & Wellness Center에서 열렸다.

임상심리학 박사이신 리더아 전 박사와 조셉전 박사가 인도한 이번 세미나는 여러 분야에서 섬기는 다양한 연령의 참석자들이 모여서 MBTI 성격유형을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과 타인의 성격유형, 소통방법, 등을 이해해 자기인식을 통해 성장하는 시

간을 가졌다. 한편 GIFT에서는 다양한 마음치유 교실과 관계기술 교실을 개최한다. 오는 1월 25일(토)과 2월 1일(토), 2주에 걸쳐 있을 마음치유교실 중 하나인 내안에 어린이 치유하기의 “회복으로 여행”과 상처받은 치유자 훈련 프로그램인 KAMT 기초반(위생병)과 심화과정(군 의관) 훈련 분학기 등록을 받고 있다.

▲문의: (714)522-4438

(기사제공: GIFT상담치유연구원)

## 서부교계 게시판

### 에피포도 출판기념 및 예술상 시상식

에피포도예술인협회(대표 백승철 목사)가 주최하는 에피포도 출판기념 및 제 23회 에피포도 예술상 시상식이 12월 21일(토) 오후 4시 사모하는교회(743 S Brea Blvd, Brea, CA)에서 열린다.

▲문의: (714)907-7430

### LA도시선교를 위한 청소년/청년부흥집회

뉴처치(담임 최순환 목사)는 LA 도시선교를 위한 청소년/청년부흥집회를 TAPESTRY LA 2F(1521 S Hill St, LA)에서 22일(주일) 오후 3시30분 개최한다.

▲문의: (310)905-2228

### 시드선교회 성탄감사예배

시드선교회 성탄감사예배가 23일(월) 오후 6시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13)387-1700

###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폰 활용법 특강

재미있는 IT(대표 윤승준 선교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폰 활용법 주제 토요일특강을 21일(토) 주님의손길교회(2275 W. Lincoln Ave. Anaheim)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남가주 웰로침교회(375 W. Towne Ave. Pomona)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갖는다. 수강료는 30달러.

▲문의: (909)971-7720

### 아프리카 차드 크리스마스 선물보내기 캠페인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의 비전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망소사이터티(이사장 유분자 장로)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아프리카 차드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현지 가격으로 쌀 한 포대에 25달러인 선물 보내기 캠페인은 연말까지 계속된다.

▲문의: (562)977-4780

### 풍성한교회 크리스마스 성극

풍성한교회(담임 박효우 목사)는 ‘예수님의 뺏짜 대작전’이라는 제목의 크리스마스 성극을 22일(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에 공연한다.

▲문의: (213)381-9490

### 은혜이슬 새벽부흥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흥 목사)는 ‘참고도 신앙을 받받아’라는 주제로 은혜이슬 새벽부흥회를 2020년 1월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개최한다. 시간은 월-금 오전 5시 20분, 토 오전 6시이며 강사는 6일(월) 한기흥 목사, 7-8일 김남수 목사(뉴욕프라이미스교회 원로), 9일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 10일 양춘길 목사(뉴저지 필그림선교회), 11일 김준근 장로(자마 GLD대표)이다.

▲문의: (714)446-6200

### 크리스마스 자선음악회

LA유스필하모닉(지휘 정진식 음악박사)이 12월 21일(토) 오후 7시 지퍼홀에서 국제기아대책기구 미주한인본부(회장 김현균 목사) 후원을 위한 크리스마스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연은 캘스테이트LA의 데이비드 벅 교수와 정진식 박사 지휘로 클래식 크리스마스 명곡인 바하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중 ‘영광 하나님께 있을지라’를 비롯해, 호두까기 인형 중 ‘마더 진저’가 연주되고 성탄 분위기에 맞게 캐롤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잠 반가운 신도여’ ‘딩동 즐겁게 놀이’ ‘장식하세’ ‘울면 안돼’ ‘징글벨 춤곡’ 등이 연주된다.

▲문의: (703)473-4696

### 비와이 ‘더 무비스타 2020’ 단독콘서트 북미투어

대한민국의 떠오르는 대표 슈퍼스타, 돈과 쾌락, 욕설과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험악하게 비와이의 메시지는 지나칠 정도로 진지하다. 그는 발표한 노래들마다 신앙에 근거한 인생의 가치관을 시종일관 선언하듯 쏟아내, 힙합을 통해 기독교 문화의 가능성과 미래 보게 했으며 최신 발매된 정규 3집 앨범, ‘The Movie Star’로 두 번째 북미 콘서트 투어를 시작할 계획이다.

데자부 그룹(Dejavu)과 Socialite Group(소셜라이트 그룹)이 독점적으로 주최하는 ‘The Movie Star 2020 Tour’는 2020년 1월 24일 애틀랜타의 센터 스테이지를 시작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9개 주요 도시에 걸쳐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BewhY(비와이) ‘더 무비스타 2020’ 콘서트 북미투어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월 24일(금): 애틀랜타-Center Stage △26일(주

일): 달라스-Canton Hall, △28일(화): 휴스턴-White Oak Indoors △29일(수): 버클리-UC극장 △30일(목): 로스앤젤레스-Ace Theatre △2월 4일(화): 밴쿠버-Vogue Theatre △5일(수): 켈거리-MacEwan Ballroom △6일(목): 토론토-QET △9일(토): 뉴욕-Mission NYC

▲문의: (929)210-2540 (기사제공: SOCIALITE GROUP)

### 서울신학대학교 남가주동문회 주관

〈9면에서 계속〉 그는 “이민목회가 어려워 탈진이 될지라도 사명감을 새롭게 되새겨 앞뒤려 기도함으로 탈진을 해소해야 된다”고 말하고 “목회자는 계속 공부해야 하고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날 동문회는 허경삼 목사에 게 자랑스러운 미주동문상을 전달했다.

(기사제공: 서울신학대학교 남가주동문회)

### “은퇴준비 기독교인들에게 도움 주고파”

#### Hercules Investments 창립 축하파티 행사

Hercules Investments(대표 제임스 맥도널드)는 LA다운타운 US뱅크타워에서 창립 축하 파티행사를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에 가졌다. 참석자들과 관계자들의 교제와 만찬으로 시작된 창립축하파티는 스텝스 개로 이어졌고 제임스 맥도널드 대표가 회사 및 사업설명을 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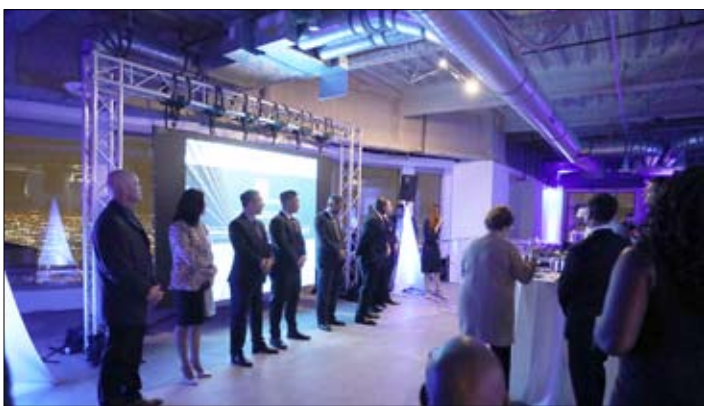
실비아안 아시안 담당 부대표는 “저희 회사를 알리는 행사로 열렸지만 한인커뮤니티에도 알리게 된 것은 처음”이라 말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인투자자들께서 옵션과 헤지펀드 투자 전략, 또는 최고의 리스크전략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 그동안 힘들게 쌓으신 귀한 재산을 보호하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창립행사에서 제임스 맥도널드 대표는 짧은 기간 동안 한인 커뮤니티의 일반 투자자들의 초기 투자금액을 50만 달러로 대폭 낮추는 방법으로 헤지펀드 투자전략과 리스크관리 전략에 대해서 소개했다.

실비아안 부대표는 “현재 가지고 계시는 은퇴 투자금에 대해 아무런 시장조정에 대한 대책이나 전략을 갖지 않으셨다면 저희 회사의 리스크관리 전략 및 다운마켓에서도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전략에 대해 도움을 주고 싶다. 특별히 은퇴를 준비 중인 한인크리스천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 (714)469-3553

(박준호 기자)



Hercules Investments 창립축하파티행사



비와이 ‘더 무비스타 2020’

## 한국교회 선교계, '미션, 비긴 어게인' 표방

2020년을 앞두고 한국교회 선교계에 재도약을 향한 의지가 솟아오르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지난달 말 한국선교지도자포럼을 개최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완성하자"며 "미션, 비긴 어게인"을 외쳤다. 포럼에서는 전 세계 난민들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고 그들을 통한 선교 동력화를 주문했다. 현지교회에서 현지인 리더십 강화, 차세대 리더십 개발, 한국교회의 선교적 교회화, 국제적 네트워크 개발, 전방개척 선교, 준비된 전문선교사 파송 등을 '비긴 어게인'의 주요 아이টে으로 선정했다.

조용중 KWMA 사무총장은 "한국교회 50% 이상이 선교에 동참하도록 격려해야 한다"며 "선교적 교회나 목회자 양육을 위해 신학교와 선교교육가들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대 선교는 과거처럼 오지를 찾아가는 선교가 아니다. 비행기가 없던 시절 선교사들은 선박으로 이동했다. 따라서 해안 부근이 선교지였다. 이후 대륙의 내지로 들어가는 선교 활동이 진행됐고 1960~70년대부터는 미전도종족 개념이 도입되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종족에게 선교사들이 다가갔다. 오늘날에는 미전도종족이 자연재해나 내전 등의 이유로 난민이 돼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다. 세계 선교계에

서는 이미 선교지가 따로 없다고 선포한 바 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구호는 그래서 나왔다.

황성주 사랑의봉사단 이사장은 11일 "제2의 선교 부흥을 위해서는 기획자와 분석가, 관리자만 키울 것이 아니라 도전가 행동가 혁명가를 같이 키워야 한다"며 "다양한 인재를 모으고 강력한 팀워크를 이루며 축적된 선교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 새로운 선교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교회와 주요 선교단체들도 새로운 선교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 시도하고 있다. 영국교회의 FX(Fresh Expression) 운동

을 비롯해 미국 남침례교단 세계선교부(IMB)의 T4T운동, 국제대학생선교회(CCC)의 '볼드리 리딩'(Boldly Leading)이 대표적이다.

T4T운동은 훈련가를 위한

졌다. 훈련은 그리스도교로 인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교 인도하고 헌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T4T운동은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검증된 교회 개척운동의 전략적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받아왔다.

이주민 또는 난민 선교는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난민선교에 힘쓰고 있는 A선교사는 "추수할 영혼이 너무 많다. 하나님은 큰 과도를 일으키시어 난민과 디아스포라를 전 세계로 흩으셨다"며 "연합을 통해 주님의 지상 대위임

리아 난민들이 들어와 있다. 최근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까지 난민들이 분포돼 있다.

유럽도 난민들이 몰리고 있다. 그리스를 통과한 400만명의 난민들이 각 국가별로 흩어져 있다. 수백만명의 아프리카 난민들도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살고 있다. 선교계에선 전 세계 난민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 7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자신의 집과 고향, 국가를 떠나 타지에서 이주민으로 사는 디아스포라는 7억명 이상이다.

이들 난민 대다수가 미전도종족이다. 한국인 선교사가 찾아가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왔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조성한 선교의 기회라 할 수 있다.

한국 선교사들로 구성된 난민 사역팀도 대륙이나 권역별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선교의 큰 그림을 공유하며 복음전파를 다짐하고 있다. 현재 10개국에서 100명이 넘는 사역자들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KWMA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KWMA는 난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고 그들을 통한 선교 동력화를 모색하고 있다. 난민지원센터를 통한 쉼터 지원, 출신국 정보 리서치 지원, 난민 관련 사역자 공유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직업훈련도 고려하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상호협력과 연합은 선교의 남은 과업을 완수하는 길"이라며 "선교 비전 완수를 위해 한국교회와 교단 선교부, 선교단체가 전 세계 교회와 더불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 추수할 영혼, 난민...선교의 동력으로

훈련(Training for Trainers)으로 복음전도와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와 선교사를 훈련시켜 또 다른 훈련자를 세운다.

요한복음 4장 35~36절에 근거한다. 이 운동을 통해 중국에서는 15만개 넘는 교회가 개척됐고 10년 동안 170만명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

며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선교사들에 따르면 터키에만 300만명의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 난민들이 있다. 레바논은 150만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유입돼 인구가 30% 증가했다. 요르단에는 200만명의 이라크와 시

## 장벽 막힌 중국선교 '엡' 으로 넘는다

### '시선을 하나님께로' 주제로 중국인 송년찬양축제

"여러분 휴대전화 하나 있으시죠? 지금 '조이차이니즈'를 검색해서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아보세요."

임재현 선교사의 말에 200여명의 중국인이 휴대전화를 꺼냈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앱을 설치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와, 휴대전화에 우리 고향이 생긴 것 같아요!"

지난 8일 서울 노량진 CTS 컨벤션홀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라는 주제로 중국인 송년 찬양 축제가 열렸다. 연말을 맞아 중국인들이 출석하는 13개 교회가 함께 모여 찬양과 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엡 미디어 방송 '조이차이니즈'를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IT 전문업체 지로드코리아(대표 강병준)는 2018년부터

자체 개발한 엡을 이스라엘 필리핀 태국 일본 네팔 선교지에 지원하며 미디어 선교에 앞장서 왔다. 24시간 들을 수 있는 찬양과 말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중국어로 더빙해 송출하고 있다. 어린이 선교를 위한 말씀 애니메이션, 찬양 율동과 중국 현지에서 진행되는 버스킹 찬양 사역,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들을 위한 일대일 상담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부족한 언어는 중국인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자원봉사자로 나선 중국인 최윤희(한국이름)씨는 "한국에 와서 신앙을 갖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중국인들을 위해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중국에서는 '조이차이니즈' 앱을 내려받을 수 없다. 종교적이라는 이유로 차단됐다. 선교사들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이름의 앱을 따로 제작했다. 할렐루야 태권도팀의 시범, 찬양 등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임 선교사는 "중국선교의 문은 더 좁아졌다. 현지 사정이 어려운 만큼 미디어를 통한 전략적인 선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퇴출당한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며 '조이 차이니즈'가 국내외 중국인 선교의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 선교사는 2006년부터 중국 선양 지역에서 실용음악학교를 세우고 찬양사역자를 양성해 왔다. 2013년 중국 정부의 탄압에 그는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추방당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던 임 선교사는 건강 악화로 2017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중국 선교사 3000명 중 2500여명이 추방됐다. 현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들도 상황이 나쁘다. 추방된 각 교단의 중국 선교사들이 모여 '중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조이차이니즈'는 2018년 11월 운영이사회를 조직하고 채널을 오픈했다. 중국 사정을 잘 아는 선교사들과 한국교회가 협력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조이차이니즈'는 13명의 후원 이사와 100여명의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후원을 받기 위한 사단법인도 준비 중이다.

그는 축제에 모인 중국인들에게 "교회의 사명은 선교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 '조이차이니즈'를 통해 여러분의 고향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이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중국인 한 영혼을 여러분이 구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성적지향 삭제하는 국가인권위법 일부 개정안 국회서 신속처리" 한교총 적극 지지 성명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이 11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교총은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침례교 등 한국교회 95% 이상이

참여하는 연합기구다.

한교총은 성명서에서 "국가인권위가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통해 동성애 등을 차별하지 말라는 핑계로 기독교대학의 건학 이념과 기독교 정체성을 부정하는 권고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동성애 동성혼

을 합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등의 동성애 옹호 활동을 노골화하고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최근 44명의 국회의원들이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면서 "늦었지만 환영하며 20대 국회에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 다수 국민의 불안과 역차별 소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평식 한교총 사무총장은 "동성애 옹호·조장 세력이 '국가인권위법 내 성적지향 삭제'는 일부 보수 기독교계만 주장하고 있다"며 용어전락을 펼치던데 사실과 다르다"면서 "한국교회 대다수를 대표하는 한교총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음세대를 성적 타락으로 이끄는 악법을 개정하는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은 심상정 이정미 남인순 정춘로 지목한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9명 중 109명(84%)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28명 중 18명(64%)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은 108명 중 25명(23%)이 동참했다.

동성애와 낙태 옹호 등의 활동을 가장 많이 한 의원 12명

## 동성애 옹호 등에 앞장선 의원은?

### 동반연, 의정활동 정당·국회의원 명단 공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 등은 1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성평등과 가정, 종교자유 가치를 훼손

하는 데 앞장섰던 정당과 국회의원 12명을 공개했다.

동반연의 발표에 따르면 동성애와 낙태 옹호 등에 가장 힘쓴 정당은 정의당이었다. 정의당은 소속 국회의원 6명 전

다 잡혀있다. 쉽게 읽을 수 있으나 그 읽혀지는 글귀마다 심오한 내적 경험과 직관의 세계가 있다. 혹자가 이 책의 반지성주의나 탈사회적 요소를 비판하지만, 아 켈프스는 지성이 말할 수 없는 영원의 세계를 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를 단순한 반지성주의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한편의 고전적인 설교나 성경의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이 글은 보편적이며 내적인 경건의 말들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의 대상이나 시대의 구분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바로 이것이 이 책을

시대를 뛰어 넘는 고전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의 행적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참 제자임을 생각하게 한다. 이런 마음을 소유하지 못한 이 시대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도전의 글이며 경건의 깊이에 다가갈 수 있는 저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우리 인간의 속성과 본성과 진면모를 분명하게 파헤치며, 외적인 영역보다 내적인 영역을 철저히 다루며 중시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인지에 대한 정직한 도전을 주고 있다. 외형적이며 성과적인 결과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교회 현실과 피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영유하는 이들에게 성경적인 경건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의 경건을 쉬지 말고 더욱 진력해야 할 것을 결단할 필요가 있다.

younsuklee@hotmail.com

## 한국교계

### 19개 선교단체 '통일코리아선교대회'

'2020 통일코리아선교대회'가 내년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에서 열린다. 주제는 '70년 전쟁을 넘어 통일코리아로'이다. 부흥한국, 평화한국, 예수전도단, AIIM, 뉴코리아, SFC, 장신대 북한선교동아리 7개 단체가 공동주관하고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등 12개 단체가 협력한다.

대회 준비위원장 김동춘 대표는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한국전쟁의 상처와 아픔, 분단과 분열 등을 조금이라도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며 "통일선교 및 북한선교 단체들이 연합하고 축제처럼 통일을 준비하는 취지로 다양한 프로그램

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윤은주 뉴코리아 대표는 "현장 사역 내용과 성서에 따른 통일비전 등 그동안 각 단체의 활동과 지혜를 한자리에 모아 보려 한다"고 밝혔다.

대회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NGO, 공동체, 탈북청소년대안학교, 캠퍼스·학원 선교단체, 신학교 등 영역별 통일준비 사역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강사는 오대원(한국예수전도단 설립자) 목사,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 김운용 장신대 교수, 배기찬 전 청와대 비서관,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등이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판문점과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탐방이 예정돼 있다.

### 새에덴교회, 2800여명 진중세례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가 14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제558차 진중세례식(사진)을 개최했다. 한국기독교교단선교연합회가 주관하고 새에덴교회가 후원한 진중세례식에선 2800여명의 훈련병이 세례를 받았다.

윤영민 대한교회목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며 "오늘 세례식을 통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길 바란다"고 설교했

다. 김영곤 새에덴교회목사는 축사에서 "이 나라의 희망은 여러분"이라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 장병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새에덴교회에서는 성경책과 십자가 목걸이, 피부용품, 간식, 신앙서적 등 각종 선물을 준비했다. 화덕을 갖춘 푸드트럭을 5대 투입해 피자 1000여판을 훈련병들에게 제공했다. 김순규 연무대군인교회목사는 "올해 연무대군인교회 진중세례식을 통해 6만8000여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전했다.

### '슈퍼크리스마스 코리아' 개막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가 14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제558차 진중세례식(사진)을 개최했다. 한국기독교교단선교연합회가 주관하고 새에덴교회가 후원한 진중세례식에선 2800여명의 훈련병이 세례를 받았다.

윤영민 대한교회목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며 "오늘 세례식을 통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길 바란다"고 설교했

다. 김영곤 새에덴교회목사는 축사에서 "이 나라의 희망은 여러분"이라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 장병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새에덴교회에서는 성경책과 십자가 목걸이, 피부용품, 간식, 신앙서적 등 각종 선물을 준비했다. 화덕을 갖춘 푸드트럭을 5대 투입해 피자 1000여판을 훈련병들에게 제공했다. 김순규 연무대군인교회목사는 "올해 연무대군인교회 진중세례식을 통해 6만8000여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전했다.

(8면에서 계속)  
그리고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늘 선물이신 그리스도가 근본이며 원인이며 동력이 되어야 한다.

3)개괄적인 평가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책은 신학적인 교리서가 아니다. 이 책의 어느 부분을 읽어도 교황제도나 교권주의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기에 신·구교인 누가 읽어도 부담이 없고 편하다고 할 수 있다. 글은 명백하고 간결하여 참으로 신선하다. 우리의 영혼을 침투하는 뛰어난 감각과 예리한 경건함이 매 문장마다

# “우울증과 영적 치유” ⑧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육, TPPM대표

## 4. 비난하는 영

내 영적인 여정에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성령님만 성경을 사용해서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마귀도 말씀을 이용해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내 마음에 혼동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비난하는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

이미 나의 죄를 자백했고 주님의 용서를 받았으며 그 전에 평안을 가졌었다. 성령님의 죄에 대한 자각은 나를 용서와 평화와 기쁨으로 인도했다. 하지만 마귀의 비난하는 음성은 나를 죄스럽고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어서 회개는 없이 그저 절망과 혼동으로 몰아버린다.

처음엔 너무 혼돈스러워서 그 음성이 어디서 오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 음성은 내가 쓸모가 없고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시리라 생각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 상반되는 말이다. 내가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완전히 혼돈에 빠져서 낙담하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 알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벌써 용서하셔서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내 과거의 죄에 신경을 쓰게 하려는 마귀의 또 다른 술수라는 것을 알았다.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비난의 영이 나를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음성에 대처하기 시작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나를 복돋아 준 성경말씀은 로마서 8:1에 쓴 바울의 서신이었다. 제11장에 그가 설명하기를 그의 죄 많음이 얼마나 자신을 고뇌하게 하고 무력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런 후에 그는 하나님께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지적하며 승리를 선포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로마서 8:1-2에 쓰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난하는 음성을 대처하기 시작한 후 부터 결국 나는 비난하는 영에

게서 놓이게 되었고 평안을 찾았다.

## 5. 전환점

깊은 우울증에서 치유되는 과정은 아주 느리고 긴 여정이었다. 악몽은 사라졌지만 괴롭히는 영에게서 완전히 놓이지는 못했다. 나는 아직도 마귀의 공격을 받아 고통을 당하여 일상에 집중하기 힘들었다. 흐릿한 내 마음은 치유가 필요했다.

수원신대학을 다니던 첫째 해에 기대하지도 않게 영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사람들을 보면 귀신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어느 날 밤 내 친구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마귀가 나를 신체적으로 밤새 공격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러 해도 전혀 잠을 잘 수 없었다.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귀신을 꾸짖고 기도하는 것이었다. 아직도 파괴적 음성과 집중할 수 없게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대학에서의 성적은 그리 좋지 못했다.

학교 친구의 집에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나에게 전환점이 찾아왔고 서광이 비추었다. 그 책은 어떻게 성령님과 사탄이 우리 마음에 이야기하는 지를

믿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사탄의 거짓말들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저항하는 대신 나는 그것을 수용했다. 나는 사탄에게 문을 열고도 몰랐던 것이었다.

나의 마음에 들어온 파괴적 음성은 ‘삶이 오직 고통과 아픔밖에 없고 그래서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가치하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회신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 주고 계심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절망의 음성을 받아들였기에 풍성한 삶을 제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심을 공간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마침내 영적 통찰력이

며, 어떤 음성에 저항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함으로써 나의 뒤뜰린 생각을 바꾸고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것은 긴 과정이었으나 우울증과 영적 억압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만 했던 일이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과 삶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야만 했다. 그것은 절망과 무력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극복하는 것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 마귀도 말씀을 이용해 혼란스럽게 하고 절망과 혼동으로 몰아버려

## 마음은 영적전쟁터, 파괴적 생각서 자유롭기 위해 내 생각을 지켜야

지 알 수 있었다. 그 사람에게서 마귀의 얼굴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정말 무서웠다. 그 영들은 나를 그대로 지나게 하지 않고, 반드시 나를 공격했다. 그것을 내 몸으로도 느낄 수 있었다. 나를 두렵고 격한 통증을 유발시키려는 문자 그대로 신체적인 구타를 당하고 있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너무 기력이 소진해져서 바닥에 그대로 무너져버릴 것 같았다.

어머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나는 기운을 얻고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 마귀가 있을 때 악마의 존재를 느꼈고, 귀신과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도 느꼈다. 이것은 나에게 완전 새로운 것으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었다.

설명했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 때까지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뒤뜰린 음성으로 우리의 생각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몰랐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혁신적인 진전이었다. 그의 영적 통찰력은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도 왜 영적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 주었다. 파괴적 생각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때 당시 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이런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서도 나는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절망의 생각들이 내 생각이라고

많이 결여된 책들을 오랫동안 읽은 것으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쓴 절망적인 책들은 나의 생각에 뒤뜰린 삶의 가치관을 심어 주었다. 또한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한국문화는 여자가 열등하다는 잘못된 생각에 기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인들의 가치관으로 나는 열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무력함과 절망감을 안겨주고 우울증으로 몰고 갔다. 우울증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나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지를 다시 배워야 했다. 내가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

## 6. 회복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분노, 용서, 절망 등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았다.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갖추기 시작하고부터는 마귀의 음성에 대항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고, 가 능하리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치유하심으로 나는 우울증에서 벗어났고, 감정적, 정신적, 영적으로 더 강해졌다. 치유를 얻은 후부터는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귀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또한 내 몸이 기력을 다할 정도로 마귀에게 두들겨 맞지도 않았다. 나는 이 과정에서 강해졌고, 우울증으로 고통 받는 다른 사람들도 치유될 수 있다고 믿는다.

yonghui.mcdonald@gmail.com

# 드라마 신약 (10)



김덕수 목사  
(성터사역원 LA지부장/하늘소망교회 담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루살렘에 교회가 개척되는 현장에 함께 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맛디아를 뽑아 12사도에 합류시키며 제자조직을 정비합니다. 그 후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베드로는 성령강림사건은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고 설교합니다.

이후 예루살렘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부흥할 때,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교회 핍박의 정점에 스테반의 순교사건이 있습니다. 그 순교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별히 2번째, 3번째 파장을 통해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렇게 등장한 사울을 통해서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여행의 현장으로 함께 동행해볼 것입니다.

## 1차 선교여행 직전(행11:19-12장)

바나바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개척된 교회로 파송을 받아갔을 때 다소에 있는 사울을 수리아 안디옥교회로 초청하여 함께 동사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천하에 큰 흉년이 와서 예루살렘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교회가 특별헌금을 거두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예루살렘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때 예루살렘에서는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참수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 일 후에 헤롯은 가이사라에서 별레에 먹혀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교회에 헌금을 전달한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수리아 안디옥교회로 복귀합니다.

## 1차 선교여행(행13장-14장)

예루살렘교회에 헌금 전달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교회로 복귀한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여행의 경로는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살루기아-살라미-바보-베가-비시디아 안디옥-이고니온-루스드라-데베-루스드라-이고니온-비시디아 안디옥-베가-앗달리아-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은 바나바와 사울, 마가 요한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갈라디아교회를 개척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합니다. 그 여행에 함께 동행해보

##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마가 요한은 수리아 안디옥교회를 출발하여 살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도착하여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여 섬을 가로질러 바보까지 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바보에 도착하여 그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 옆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 바에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다가 두 눈이 멀게 됩니다. 그 사건을 지켜보던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성경에서는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 ‘바울’이라고 부르겠

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은 배를 타고 바보를 떠나서 밤빌리아의 항구도시인 베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가 요한이 일행에서 탈락합니다. 아마도 넘어야 할 토러스 산맥이 너무나 험난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어쨌건 마가 요한이 일행에서 탈락한 이유는 정당하고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변심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일행에서 탈락한 사건 때문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우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이 일행에서 탈락한 후,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

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을 박해하기 위해서 루스드라까지 출장을 와서 백성들을 충동합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을 돌로 치고 바울이 죽을 줄 알고 바울을 시외로 끌어 내칩니다. 이 사건 이후 바울은 더베로 이동을 하여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바울의 육체적인 상태는 아마 거동도 불편할 만큼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더베에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는 무척 가깝습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수리

아의 베가와 항구도시 앗달리아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교회로 복귀하며 1차 선교여행을 마칩니다.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는 갈라디아교회입니다.

## 예루살렘 종교회의(행15장)

바울 일행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교회로 복귀했을 때, 수리아 안디옥교회는 유대인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심각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1차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 유대 거짓교사들은 바울의 가르침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대신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과 수리아 안디옥교회 교우들 간에 심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고, 해결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판결권을 결의하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교회에 속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야고보는 각각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로를 만났던 사건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을 통한 구원을 주신다고 주장했고,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는 이유는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회의의 결과는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정합니다. 다만 개종한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던 옛 구습을 버리면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권면사항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의결사항이 적힌 예루살렘 종교회의 공문서 편지를 가지고 유다와 실라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과로 수리아 안디옥교회의 문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에 우리도 함께 동행해보겠습니다.

dsukim@gmail.com



## 바울의 1차 선교여행

## 사울에서 바울로...1차여행 통해 갈라디아교회 세워 예루살렘 종교회의 결과 이방인 할례 문제 일단락

디아 안디옥으로 이동 합니다. 바울 일행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붙들고 있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이유는 박해 때문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박해했기 때문에 루스드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바울 일행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제사 드리지 못하게 말리면서 복음을 전할

아 안디옥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바울은 다소 고향집에서 몸을 추스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해도 될 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를 들렀다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야말로 적진 한복판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교회’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며 세운 갈라디아교회를 더욱 든든한 조직교회로 교인들에게 굳건한 믿음에 머물라고 권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을 양육시키며 교회를 든든히 세운 후에 바울은 밤빌리아 지방

성탄 축하 광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누가복음 2:14

기쁘다  
주님 오셨네!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

Tel.(562)691-0691  
Fax.(562)691-0698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Tel. (516)520-2004  
www.nygethseme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욱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 NY11357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용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718)224-1993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Tel.(213)559-7728(전화 팩스 겸용)  
Tel.(213)210-6890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

Tel. (702)749-9929  
Fax. (702)478-7224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Tel. (917)862-0523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213)380-9377  
Tel.(213)380-9079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중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빛과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장요셉

1864 Precinct Line Rd,  
Hurst, TX 76054

Tel. (817)427-1020  
Fax.(817)427-0110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Tel.(310)749-0577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Cell.(704)877-6642  
Tel.(704)529-0900

**세계적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 김순관 목사

Tel.(808)542-2922  
www.ikccah.org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www.sunghwachurch.org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213)749-670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필라한인연합교회**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3416 W. 1st St,  
L.A., CA 90004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

# 영어로 보는 성경 (47)

English Bible

이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 Romans 10:9,10

9) If you declare with your mouth, "Jesus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10) For it is with your heart that you believe and are justified, and it is with your mouth that you profess your faith and are saved.

(NIV 2011)

### WORD & IDIOM

\* declare: 선포하다, 분명히 말하다, 시인하다 \* raise A from B: B에서 A를 일으키다 \* the dead: 죽은 자들 \* justify: 의롭게 하다, 정당화 시키다 \* profess: (신조, 감정 등을) 공언하다

### GRAMMAR

9) If **you declare** **with your mouth,** **"Jesus is Lord,"**  
 만약 내가 선언하다 네 입으로 "예수는 주(主)이다,"  
**and believe in your heart**  
 그리고 믿다 마음 안(속)에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하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셨다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 만약 네가 네 입으로 "예수가 주이심"을 선언하고 네 마음 안(속)에 하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 <(with your mouth)>와 <(in your heart)>는 전치사구로 부사적 기능을 가지며 동사와 목적어(절)사이에 각각 삽입되었다. <declare>의 목적절은 <(Jesus is Lord)>이며, <believe>의 목적절은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이다. 접속사 <and>로 이어지는 문장의 주어와 생략된 것은 전체문장의 맨 앞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반복을 피한 것이다. \* <(you will be saved)>는 수동태의 미래형 문장이다. 수동태(passive voice)란 <be+과거분사>의 구조로 이루어지며 문장의 주어와 동사의 동작이나 행위를 직접 하지 않고 주어와 동사의 행위나 동작을 받거나 당할 때 쓰이는 표현법이다.

Ex) The Bible was written **by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성경은(이) 쓰여 졌다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 성경은(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쓰여 졌다.

10) For **it is with your heart**  
 왜냐하면 that ~ 이하는 너의 마음으로부터  
**that you believe and are justified,**  
 you ~ 이하라는 것 내가 믿는다 그리고 의롭게 되다  
**and it is with your mouth**  
 그리고 that ~ 이하는 입으로부터  
**that you profess your faith and are saved.**  
 you ~ 이하라는 것 네가 너의 믿음을 공언하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 왜냐하면 네가 믿고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네 마음으로부터, 네가 네 믿음을 공언하고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네 입으로부터이기 때문이다.

\* 10절 말씀이 <For, 왜냐하면>로 시작된 것은 앞의 9절 말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은 <For, 왜냐하면>이란 의미를 전체 문장에 넣어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 이기 때문이다>라는 우리말 형식에 맞도록 문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이 문장은 <It is ~ that ...>의 용법을 사용한 두 개의 강조구문으로 연결되어 있다. <it is with your heart>과 <it is with your mouth>를 각각 강조하는 문장 구조이다. 이와 같은 강조구문은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을 <It is> 바로 다음에 놓고 <that, who, which, where> 등으로 연결하여 무엇에서 강조되는지 그 내용을 쓰면 된다.

Ex) It is the little things **that make the difference in life,**  
 (that ~이하는) 바로 사소한 것들이다 인생에서 차이를 만든다 = 인생에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사소한 것들이다.  
 \* <It is ~ that>의 강조구문에서 <that> 다음의 동사가 <makes>가 아니라 <make>인 것은 <little things-복수>가 주어와 되기 때문이다. <It is ~ that>을 빼고 문장을 분석해 보라.

### STUDY & THOUGH

■ 예수를 주(主)로 시인하는 것은 믿음을 통한 구원의 필요 요소이다. '주'라는 칭호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주라고 호칭하던 것과 관련하여 예수 역시 선재하시며 초월하신 동시에 내재하시는 분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으로 보고 그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의 호칭을 붙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칭호이다.

■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의인이 되고 '의'의 결과인 구원을 얻게 된다. 여기서 마음이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인격의 중심지이다.

■ Whoever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receive salvation.

livingstonech@gmail.com

#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 월 너는 네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왕상20:4-6)

너는 네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왕상20:4-6)

아합왕을 통해 아무리 번성하고 잘돼도 하나님을 떠나면 한순간에 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어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한순간에 비굴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아합왕이 아람왕 벤하닷에게 "내 주 왕이여!"라고 부르짖는다. 벤하닷에게 겁을 먹고 즉시 항복하는 것입니다.

아합왕은 일단 항복한다고 하면 좀 봐 줄 줄 알고 비굴하게 나오지만 오히려 더 심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을 타협하고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면 세상은 오히려 성도들을 더 짓밟습니다. 위기가 와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더욱 담대하게 살아갈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 화 오늘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니(왕상20:7-14)

아합왕이 아무리 한심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승리케 하십니다. 아합왕이 벤하닷에게 항복을 했는데 내일 와서 다 빼앗아가겠다고 하니 아합왕이 급히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결론은 항복을 취소하고 한번 붙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큰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크게 이겼습니다. 여기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합왕

과 이세벨의 행실을 보면 이미 전쟁이 나가기 전에 항복한 것인데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벤하닷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우습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아합이 잘나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신실한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의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십니다.

## 수 소년들을 계수하니 이백삼십이인이요(왕상20:15-30)

결국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들의 헌신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람군대에 기죽지 않는 소년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인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32명대10만명입니다.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겼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와 구원은 사람이 많

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숫자와 능력과 물질이 있으면 승리할 줄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숫자지만 남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는 수많은 사람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한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 목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왕상20:31-33)

신앙의 주대가 없으면 승리한 후에도 악한 세력이 계속 넘어뜨리려고 유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왕은 전쟁에 승리한 후 한 가지 잊어서는 안될 것은 아람왕 벤하닷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한 왕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벤하닷의 신복들이 아합왕에게 와서 분심을 속이고 한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며 호소하니, 아합왕은 "벤하닷은 나의 형제"

라며 벤하닷을 자신의 병거에 태우게 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해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합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왕을 물리치고 다시 동맹을 맺음으로 결국 자신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는 늘 착해야 하지만 인간의 정에 이끌리지 않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 금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왕상20:34-42)

벤하닷은 아합왕의 병거에 탄 후에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빼앗은 것을 돌려주고 다메섹의 도로를 만들어서 경제적인 이익을 갖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솔깃해 계약을 체결하고 결국 벤하닷을 놓아줍니다. 정말 벤하닷이 빼앗은 것을 돌려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또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아합은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달콤한 유혹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인정사정없이 꼬드겨서 넘어뜨리는 것이 작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 토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왕상20:43)

성도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합은 이미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완전히 죽어 버려야 하는 벤하닷을 살려줌으로써 이제는 벤하닷 대신 죽어야 하는 벌을 받게 됐습니다.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 아합왕이 죽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이때 아합왕은 자신이 대신 죽게 될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분명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가 불쾌하고 언짢은 심정으로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성도는 잘못했으면 불쾌하고 언짢아하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실수하고 잘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주십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킹장 완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세브르드 예배당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윌리엄스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이룹니다.

EVANGELIA UNIVERSITY

비전을 *EMBRACE YOUR VISION* 품어요

신입생 / 편입생 모집  
복음대학교 2020 봄학기

### 목회학박사 과정 집중강의

2020년 1월 06일-17일  
논문작성과 글쓰기 / 목회와 리더십 / 목회와 상담

### L.A. TEACHING-SITE 학생모집

L.A. 티칭사이트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고 학생을 모집합니다.

### 본교 특징

개혁신학과 성경 중심의 신학 교육  
연방학력인준 기관인 TRACS의 정회원  
SEVIS를 통해 I-20 발행  
모든 과정 ON-LINE 원거리교육  
MDIV & MAR ENGLISH PROGRAMS:  
FULL SCHOLARSHIP FOR NEW STUDENTS

### 본교 학위과정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목회학석사 (MASTER OF DIVINITY)  
문학석사 (M.A IN RELIGION)  
문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봄학기 학사일정

학기 일정: 2020년 1월 20일 -5월 8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20년 1월 14일  
학생지원마감: 현재 접수중  
학과등록: 2020년 1월 6일-1월 16일

### 입학/등록 문의

교학과장: MR. 이 찰리 (714) 527-0691  
DIRECTOR OF ENGLISH PROGRAM: PROF. ROGER KIM (714) 858-2684  
L.A. TEACHING SITE: 윤태선 목사 (INTERIM DIRECTOR OF L.A.T.S.) (323) 731-9191  
교광석 전도사 (213) 570-1823

Thinking of going to Seminary?

## APPLY FOR SPRING 2020

Biblical Reformed Christ-Centered Education  
Missional Seminary

Accredited by TRACS

Full Tuition  
Scholarship Available

Flexible Education:  
On Campus and/or Online Classes

Apply today, apply online:  
Evangelia.edu/online-application/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Roger Kim.  
rkim@evangelia.edu

MAIN CAMPUS  
2660 W WOODLAND DR # 200,  
ANAHEIM, CA 92801

LA TEACHING SITE  
3406 W. WASHINGTON BLVD.  
L.A. CA90018 (미주임마누엘교회)

714-527-0691  
INFO@EVANGELIA.EDU  
www.evangelia.edu

총장: 김 성수 박사